

한국사연구회

# 제339차 월례발표회

## 자 료 집

일시 : 2022년 3월 12일(토) 14:00~16:10

장소 : 줌

<https://korea-ac-kr.zoom.us/j/2532664989?pwd=aGdWNFBvR3M0aHdqUGE5clgwWXVldz09>

## 목 차

### Ⅰ 제1발표 Ⅰ 고려전기 迎賓 관부의 설치와 운영—禮賓省을 중심으로—

- 발표 : 김규록(고려대) ..... 1
- 토론 : 최종석(동덕여대) ..... 16

### Ⅰ 제2발표 Ⅰ 고려전기 사면의례의 구성과 의미

- 발표 : 윤채운(충남대) ..... 19
- 토론 : 이승민(가톨릭대) ..... 53

## 고려전기 迎賓 관부의 설치와 운영—禮賓省을 중심으로—

김규록(고려대 박사수료)

1. 머리말
2. 迎賓 관부의 설치-예빈성과 객성
3. 예빈성의 운영
4. 예빈성의 운영상 특징
5. 맺음말

### 1. 머리말

918년(태조 1)에 고려가 건국될 무렵의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격변의 시기였다. 이에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인접한 후백제와 交通하는 동시에 신라와 우호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멀리 중국 五代의 여러 왕조들과도 차례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일원으로 합류하였다. 이후 960년에 漢族이 세운 宋이 건국되자, 고려는 곧 송과 통교하였다. 그러나 송이 이전의 唐과 달리 중국대륙의 강자로서 중심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북방민족이 세운 遼와 金이 차례로 흥기하여 고려와 송 양국에 압력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고려는 요 후에는 금과 冊封과 正朔을 전제로 하는 외교관계를 맺는 한편으로 송에 대해서도 事大를 표하는 복잡한 양상의 대외관계를 지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국가 간의 교류와 교섭은 使節의 왕래를 통해 이루어졌다.<sup>1)</sup> 다시 말해 국가 간의 외교는 정기적·비정기적인 사절 교환을 매개로 한 중요한 사안의 전달과 이에 대한 應對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는 외국 사절을 맞이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와 기구를 마련했을까.

고려에서 대외 업무를 담당한 관서는 禮部와 禮賓省<sup>2)</sup>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예부는 『高麗史』 백관지에 “예의·제향·조회·교빙·학교·과거의 정사를 관장하였다.”<sup>3)</sup>라고 하여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는 가운데 交聘의 일도 관여했던 듯하다. 그러한 탓인지 예부가 교빙 등의 대외 업무 일선에서 활동한 자료는 많지 않다. 반면 후자의 예빈성은 『高麗史』에서 언급한

1) 권덕영, 2005,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新羅文化』 25, 99쪽.

2) 禮賓省은 사료 상에 禮賓寺·客省·典客寺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예컨대 『高麗史』 백관지에는 고려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명칭을 주제어로 삼는다는 편찬 방침에 따라 예빈시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 전시기에 걸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명칭은 예빈성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예빈성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3) 『高麗史』 권76, 志30 百官1 禮曹 禮曹掌禮儀祭享朝會交聘學校科擧之政.

“빈객에 대한 연향의 업무를 관장한”<sup>4)</sup> 외에도 다양한 대외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이러한 예빈성의 활발한 활동은 고려전기의 복잡한 대외관계의 전개 속에서 나름의 외교적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빈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고려와 일본 또는 고려와 중국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고려 예빈성이 발행한牒에 대한 일부 언급 내지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소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이다.<sup>5)</sup> 이후 송상과 고려 해상의 활동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고려 예빈성이 발행한 첩이 송의 公憑과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한 연구도 있다.<sup>6)</sup> 한편 최근에 고려 예빈성이 발행한 문서의 사례 검토와 서식 복원 등을 통해 <예빈성첩>이 외교문서로서 기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는 여기에 서식상의 차등을 두어 나름의 대외 인식을 드러냈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sup>7)</sup>

이상의 연구는 주로 예빈성이 발행한 문서에 대한 연구로, 이를 바탕으로 자료 발굴, 내용 검토, 서식 복원 나아가 외교사적 의의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빈성의 설치와 운영 등을 전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고려 예빈성의 설치 과정과 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전기 예빈성의 운영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를 통해 예빈성의 활동이 고려의 외교상에서 차지했던 나름의 역할과 위상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迎賓 관부의 설치-예빈성과 객성

다음은 고려 건국 초의 賓客 내방에 관련된 자료들이다.

A1. 견훤이 一吉燦 閔邵을 보내어 즉위를 하례하자 廣評侍郎 韓申一 등에게 명하여 甘彌縣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민합이 이르자 厚禮하고 보냈다.<sup>8)</sup>

A2. 갑오일에 尙州의 賊帥 阿字蓋가 사신을 보내와 귀부했다. 왕이 의식을 갖추어 맞이하도록 명하자 毬庭에서 의식을 연습하려고 문무관이 모두 반차에 따라 늘어서는데, 廣評郎中 柳問律과 直省官 朱瑄劼이 반차를 다투었다. 왕이 말하기를, “사양은 예의 으뜸이고 공경은 덕의 근본이다. 지금 예로써 接賓하여 장차 그 성과를 보고자하는데, 유문율과 주선 같이 반열을 다투니 어찌 공경하고 삼가는 것이겠는가. 마땅히 모두 변방으로 보내어 그 죄를 드러내도록 하라.”고 하였다.<sup>9)</sup>

4) 『高麗史』 권76, 志30 百官1 禮賓寺 禮賓寺 掌賓客燕享.

5) 노명호 외, 2000, 「高麗禮賓省對日本牒」 및 「高麗禮賓省對南宋牒」,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상)』, 서울대출판부 ; 李善洪, 2006, 「『高麗國對南宋牒』研究」, 『北華大學學報』 ; 정동훈, 2017, 10세기 동아시아의 질서와 외교문서의 서식, 『한국중세사연구』 49.

6) 김영제, 2019, 「송원대 각 국 상인에 대한 국적 판별의 근거」, 『고려 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7) 김보광, 2022, 「고려전기 <禮賓省牒>의 書式 복원과 외교상의 의미」, 『東方學志』 197.

8)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1년 8월 辛亥. 甄萱遣一吉燦閔邵 來賀即位 命廣評侍郎韓申一等 迎于甘彌縣 邵至 厚禮遣之.

9)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1년 9월 甲午. 尙州賊帥阿字蓋 遣使來附 王命備儀迎之 習儀於毬庭 文

A3. 3년 봄 정월에 신라가 비로소 사절을 보내어 來聘하였다.<sup>10)</sup>

위의 A1~A3은 모두 고려 건국 초 외국 사절의 고려 내방을 기록한 것으로, 대개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보면, 당시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사절의 방문이 빈번하였고, 이미 그들을 맞이하는 일정한 절차와 의식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먼저 A1은 고려 건국 직후인 918년 8월에 후백제 견훤이 일길찬 민합을 파견해 태조의 즉위를 축하하자 광평시랑 한신일을 보내 감미현에서 사절을 맞이하고 후하게 대우하여 보냈다는 기록이다. 이와 관련해 『高麗史節要』에는 당시 고려 국왕이 직접 大中殿에 나아가 후백제 사절로부터 즉위 하례를 받았다<sup>11)</sup>라고 하여, A1에는 보이지 않는 고려 국왕의 의식 참여 모습과 의식의 선행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고려는 건국 초에 이미 사절의 파견 통지를 받으면 관원을 보내 그들을 맞이하였고 이어 궁궐에서 국왕의 참여 하에 “受賀” 의식을 선행하였으며, 이후 사절을 “厚禮”하여 보내는 일련의 迎賓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던 듯하다.

A2는 918년 9월에 상주 출신의 賊帥 아자개가 사절을 보내어 귀부 의사를 전달하자 왕이 의식을 갖추어 영접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다. 이때 고려 관원들이 모두 구정에 모여 반차에 따라 “習儀” 즉 의례를 연습했다는 것으로 보아, 고려는 건국 초에 이미 모든 관원이 참여하는 형태의 외교 의례를 선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A3은 920년에 신라가 처음으로 사절을 파견해 來聘했다는 내용으로, 『三國史記』에는 이때의 일을 신라 경명왕과 고려 태조가 서로 사절을 보내 修好했다<sup>12)</sup>라고 하여 당시의 정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이의 실상은 알 수 없다. 다만 앞의 A1과 A2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고려와 신라는 모두 영빈 절차와 의례를 갖추고 상대국 사절을 맞이했으리라는 것만은 짐작 할 수 있다.<sup>13)</sup>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의 영빈 절차를 정리하면, 사절 파견의 通知-고려 관원의 영접-궁궐 의례-사절에 대한 厚禮의 순으로 진행되었던 듯하다.

이처럼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빈번한 사절의 내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영송과 접대를 전담할 迎賓 관서의 설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을 것이다.

B1. 禮賓寺, 賓客에게 연향을 베푸는 일을 관장하였다. 태조 4년에 禮賓省을 두었다. 성종 14년에 客省이라 고쳤고, 후에 다시 예빈성으로 고쳤다.<sup>14)</sup>

武官俱就班 廣評郎中柳問律 與直省官朱瑄劫爭列 王曰讓爲禮宗 敬乃德本 今接賓以禮 將觀厥成 而問律瑄劫爭列 豈敬慎者乎 宜並徙邊 以彰其罪.

10)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3년 春正月. 新羅始遣使來聘.

11) 『高麗史節要』 권1, 太祖 1년 8월. 甄萱遣一吉祭閔邵 來賀即位 王御大中殿受賀 厚禮遣之.

12) 『三國史記』 권12, 新羅本紀12 景明王 4년 春正月. 王與太祖交聘修好.

13) 931년 2월 고려 태조가 신라를 방문 했을 때에 신라가 행한 영접 과정을 보건대(『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14년 2월 辛亥), 신라 역시 외국 사절을 맞이하는 영빈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채미하, 2006, 「신라 중대 오례와 왕권-오례 수용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27 ; 채미하, 2011, 「신라의 賓禮」, 『韓國史學報』 43 ; 최희준, 2011, 「신라 中代의 唐 사신 영접 절차와 운용」, 『韓國史研究』 153 ; 朴南守, 2011, 「8세기 新羅의 동아시아 外交와 迎賓 체계」, 『新羅史學報』 21 참조.

B1은 빈객에게 연향을 베푸는 일을 관장했던 禮賓省의 연혁에 대한 기록이다. 이에 의하면, 예빈성은 921년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고려는 건국 직후 태봉의 제도를 수용하여 관부체제를 재편하였는데,<sup>15)</sup> 예빈성의 설치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16)</sup> 그러나 이외에 관련 기록이 없어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 다만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예빈성에 속한 관원의 활동이 확인된다.

B2. 이해에 禮賓卿 邢順 등을 후당에 보냈다.<sup>17)</sup>

B3. 광평시랑 韓玄珪와 예빈경 金廉을 후진에 보내어 嗣位를 고하고 드디어 거란을 격파한 것을 하례하였다.<sup>18)</sup>

B2는 935년(태조 16)에 고려가 예빈경 형순을 후당에 파견한 기록으로, 이때 처음으로 예빈성의 관원인 예빈경이 등장한다. B3은 944년(혜종 1)에 고려가 후진에 사절을 파견해 태조의 뒤를 이어 혜종이 즉위했음을 알린 기록인데, 여기에도 예빈경이 재차 등장한다.

위의 B1~B3의 기록을 통해 볼 때, 고려는 건국 초에 해당하는 921년 내지는 적어도 935년 이전에 영빈 기구인 예빈성을 설치하고 여기에 예빈경 등의 관직을 두어, 사절의 내방에 대비함으로써 건국 무렵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 변동에 긴밀히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의 B1에 의하면, 예빈성은 995년(성종 14)에 객성으로 개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듯하다. 왜냐하면 객성은 이보다 이른 시기인 광종대<sup>19)</sup>와 986(성종 5)년의 기록<sup>20)</sup>에서 이미 확인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빈성을 객성으로 개정한 995년 이후에도 예빈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예컨대 1005년(목종 8)에 송의 문사로서 내투한 周佇를 禮賓注簿로 임명한 일,<sup>21)</sup> 1010년(현종 1)에 禮賓卿 朴忠淑을 中軍兵馬使로 임명한 일,<sup>22)</sup> 1013년에 禮賓少卿 張洎이 거란에 사행한 일,<sup>23)</sup> 1076년(문종 30)의 문무반록 가운데 判禮賓事가 있으며,<sup>24)</sup> 동년의 경정전시과에도 禮賓承旨<sup>25)</sup> 등의 사례가 등장한다. 그런가 하면 雜別賜 항목에는 客省承旨·孔目·都衙가 기재되어 있다.<sup>26)</sup>

14) 『高麗史』 권76, 志30 百官1 禮賓寺. 禮賓寺 掌賓客燕享 太祖四年 置禮賓省 成宗十四年 改客省 後復改禮賓省.

15) 李泰鎮, 1972, 「高麗 宰府의 成立-그 制度史의 考察-」, 『歷史學報』 56.

16) 『三國史記』에 태봉의 관직을 기록한 내용 중에 수춘부는 지금의 예부이고, 봉빈부는 지금의 예빈성이라 하였으며(『三國史記』 권40, 雜志9 職官下 外官 壽春部 今禮部 奉賓部 今禮賓省), 923년에 태봉의 수춘부에 해당하는 고려 춘부 관원인 박암이 후당에 使行한 기록이 확인되는 되므로(『新五代史』 권74, 四夷附錄3 高麗 同光元年), 예빈성 역시 춘부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태봉의 수춘부는 고려 건국 초에는 춘부로 불리었던 듯하다.

17)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18년 12월. 是歲 遣禮賓卿邢順等如唐.

18) 『高麗史』 권2, 世家2 惠宗 1년. 遣廣評侍郎韓玄珪 禮賓卿金廉如晉 告嗣位 遂賀破契丹.

19) 『高麗史』 권94, 列傳7 皇甫僉義 附張延祐.

20) 『高麗史』 권74, 志28 選舉2 學校 國學 成宗 5년 7월.

21) 『高麗史』 권3, 世家3 穆宗 8년. 是歲 宋溫州文士周佇來投 授禮賓注簿.

22) 『高麗史』 권4, 世家4 顯宗 1년 冬10월 丙午朔.

23) 『高麗史』 권4, 世家4 顯宗 4년 春正月. 丁酉 遣禮賓少卿張洎如契丹.

24) 『高麗史』 권80, 志34 食貨3 祿俸 文武班祿.

25) 『高麗史』 권78,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26) 『高麗史』 권78,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雜別賜.

이상의 사례를 통해 볼 때, B1의 기록과는 달리 986년부터 1076년까지는 예빈성과 객성이 혼칭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고려사』 찬자 역시 B1의 후반부에서 객성이 다시 예빈성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면서도 이의 변경 시기를 적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7)</sup>

그렇다면 왜 995년에 예빈성이 객성으로 개정되었다고 기록했을까.

C. 무오일에 교하기를, “... 지금 여러 官司를 보면 체계(事體)는 비록 禮典을 따랐으나, 額名은 자못 임시로 부르는 것이 있다. 典常을 살펴 可否를 나누고, 假號는 모두 제거하여 널리 通規를 나타내도록 하라.”고 하였다.<sup>28)</sup>

C는 995년(성종 14)에 여러 관사 가운데 額名이 임시적인 것들을 常典에 의거해 그 명칭을 제거한다는 취지하에 대대적으로 관부명을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앙의 여러 관부명이 중국식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때 御事都省은 尙書都省으로, 御事6관은 尙書6부로 개정되었다.<sup>29)</sup> 예빈성을 객성으로 개정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관서명의 개칭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995년의 관제 개정에 왜 영빈기구인 예빈성이 포함되었는가라는 점이다. 이는 995년을 전후한 시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이에 따른 대외정책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 듯하다.

고려는 962년(광종 13)에 처음으로 송에 사절을 파견하였고,<sup>30)</sup> 이듬해인 963년부터 송의 연호를 사용하고 책봉을 받았다.<sup>31)</sup> 이후로 양국은 지속적으로 사절을 교환하였다. 특히 성종의 경우 983년(성종 2)을 시작으로 99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sup>32)</sup> 이러한 고려와 송의 정치적 밀착은 거란에 위기의식을 증가시켰던 듯하다.

이에 993년(성종 12)에 거란은 송과의 전쟁을 앞서 배후의 위협이 되는 고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침략을 개시하였다.<sup>33)</sup> 거란과의 1차 전쟁이 서희를 앞세운 협상<sup>34)</sup> 끝에 994년에 종결되자, 고려는 그해 2월부터 자발적으로 거란의 年號와 正朔을 사용하였다.<sup>35)</sup> 이듬해인 995년에도 고려는 연달아 거란에 사절을 파견해 예물을 바치고 황실에 請婚을 하는<sup>36)</sup> 등 적극적인 대거란 정책을 펼쳤으며, 996년에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게 되었다.<sup>37)</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는 거란과의 1차 전쟁이 끝난 직후 연이어 사절을 파견하고 자발적으로 연호와 정삭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거란 정책을 펼친 결과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아 거란을 우위로 하는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려의

27) 이상의 정황을 들어 995년에 예빈성을 객성으로 개정했다고 하는 『고려사』 백관지의 기록을 오류로 보는 견해도 있다(朴龍雲, 2009, 『『高麗史』百官志譯註』, 신서원, 296·297쪽).

28) 『高麗史』 권3, 世家3 成宗 14년 5월 戊午. 敎曰 … 今以諸官司 事體雖遵於禮典 額名頗有所權稱 考厥典常 分其可否 悉除假號 克示通規.

29) 邊太燮, 1970, 「高麗時代 中央政治機構의 行政體系—尙書省 機構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47 ; 197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5~8쪽.

30) 『高麗史』 권2, 世家2 光宗 13년. 冬遣廣評侍郎李興祐等如宋 獻方物.

31) 『高麗史』 권2, 世家2 光宗 14년 冬12월. 行宋年號 宋遣冊命使時贊來.

32) 『高麗史』 권3, 世家3 成宗 2년 3월 戊寅·4년 夏5월·7년 10월·9년 夏6월·11년 夏6월 甲子.

33) 『高麗史』 권3, 世家3 成宗 12년 5월·8월.

34) 『高麗史』 권3, 世家3 成宗 12년 閏10월 및 『高麗史節要』 권2, 成宗 12년 閏10월.

35) 『高麗史』 권3, 世家3 成宗 13년 春2월·4월.

36) 『高麗史』 권3, 世家3 成宗 14년 2월.

37) 『高麗史』 권3, 世家3 成宗 15년 春3월.

대외관계의 변화는 결국 거란 사절의 영송과 영접 등에 관련된 영빈 기구와 외교의례의 정비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예빈성이 객성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8)</sup>

### 3. 예빈성의 운영

『高麗史』 백관지에는 예빈성의 관장 사항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D1. 예빈시, 빈객에게 燕享을 베푸는 일을 관장하였다.<sup>39)</sup>

D1에 따르면, 예빈성은 고려의 입장에서 賓客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향을 베푸는 일을 담당하던 관서였다는 것인데, 해당 기록만으로는 예빈성의 연향 대상이라는 빈객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그리고 예빈성이 베푸는 연향이라는 것도 상당히 모호하다. 이러한 고려의 예빈성과 같은 일을 담당한 관서는 唐에서도 확인된다.

D2. 鴻臚寺, 賓客과 凶儀의 일을 관장하였다. … 典客, 司儀 2署를 관할하여 그 속관을 거느리고 직무를 함께하였다. … 사방의 夷狄君長이 조현하러 왔을 때 그 等位를 구분하여 賓待하였다.<sup>40)</sup>

D2는 『舊唐書』에 홍려시의 관장 사항을 기록한 내용이다. D2에 의하면, 홍려시는 빈객과 흉의에 대한 일을 관장하였는데 그 아래에 전객서와 사의서를 속관으로 두었다. 그리고 앞서의 빈객의 일이라는 것은 사방의 夷狄君長이 朝見하러 왔을 때 각각의 등차를 분별해 賓待한다라는 내용을 부기하여, 홍려시가 관할한 빈객의 범위와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었다.

그러하다면 고려의 예빈성은 당의 홍려시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관서이기는 하지만 흥의 일은 담당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자료를 보자.

D3. 典客署 … 四夷歸化在藩者の 朝貢과 宴享과 送迎을 모두 간여하였다.<sup>41)</sup>

38) 이러한 사실은 북조 황제의 조서를 받는 의례에 해당하는 『迎北朝詔使儀』에 客省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高麗史』 권65, 禮7 賓禮 迎北朝詔使儀 使臣再拜 奏聖體 … 閣使傳 有敎賜客省茶酒食 舍人喝 再拜 引出殿門). 한편 송의 영빈 관부는 鴻臚寺로, 여기에서 四夷의 朝貢·宴勞·送迎의 일 등을 관장하였으며(『宋史』 권165, 志118 職官5 鴻臚寺), 거란은 객성의 자세한 관장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遼史』 권47, 志17上 百官志3 南面1 南面朝官 客省). 좌우객성사와 객성부사를 두고, 국신사의 조현, 외국 사절의 접대를 위한 연회, 四夷 수령의 공납과 예우, 조서와 상사 등을 관장한 듯하다. 금의 경우 객성에 접반인을 두고 사절의 見辭의 일을 관장하였다(『金史』 권56, 志37 百官2 客省).

39) 『高麗史』 권76, 志30 百官1 禮賓寺. 掌賓客燕享.

40) 『舊唐書』 권44, 志24 職官3 鴻臚寺. 鴻臚寺 掌賓客及凶儀之事 領典客 司儀二署 以率其官屬 供其職務 … 凡四方夷狄君長朝見者 辨其等位 以賓待之.

41) 『新唐書』 권48, 志38 職官3 鴻臚寺. 典客署 … 四夷歸化在藩者 朝貢宴享 送迎皆預焉.



D4. 司儀署 … 凶禮와 喪葬을 모두 관장하였다.<sup>42)</sup>

위의 D3과 D4는 『新唐書』에 기재된 홍려시의 속관인 전객서와 사의서에 관한 내용 중 일부이다. 이에 의하면, 전객서는 四夷歸化在藩者의 조공과 연향 및 영송의 일을, 사의서는 홍의와 상장의 일을 관장하였다. 홍려시의 속관인 전객서와 사의서가 각각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고려의 예빈성은 홍려시의 속관 가운데 하나인 전객서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 관서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전객서는 四夷歸化在藩者의 조공과 연향 및 영송의 일을 관장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고려의 예빈성에 비해 다소 광범위한 분야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고려의 예빈성은 당의 전객서와 달리 빈객에게 연향만을 제공하는 단순 賓待 즉 빈객에 대한 접대 업무만을 수행했을까. 이제 고려 예빈성과 여기에 속한 관원들의 여러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그 운영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절의 영송과 접대

다음은 예빈성의 구체적인 운영상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E1. 장연우는 瀛州 尙質縣 사람이다. 신라 말에 부친 張儒가 吳越로 피난 갔다가 후에 還國하였다. 光宗은 (그가) 중국어를 잘하므로 누차 客省에 제수하였고, 매년 중국 사절이 오면 반드시 장유로 하여금 擯接케 하였다.<sup>43)</sup>

E2. 이해에 宋 溫州의 文士 周佇가 來投하자, 그에게 禮賓主簿를 내려주었다.<sup>44)</sup>

E1은 신라 말의 사회 혼란을 피해 오월에 피난 갔다 돌아온 張儒를 객성의 관원으로 임명해 중국 사절이 올 때마다 접대하도록 했다는 기록이다. E2는 송나라 출신 내투자인 주저를 예빈성주부로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신라 및 후백제와 교류하는 한편 중국의 오대를 비롯한 여러 왕조들과 통교하고 지속적으로 사절을 교환했다. 이에 고려는 일찍부터 영빈 관부를 설치하고 중국 사절의 내방에 대비하였는데, E1에 “매년 중국 사절이 오면 반드시 장유로 하여금 擯接케 했다”는 것으로 보아, 고려 건국 초 예빈성과 여기에 속한 관원들이 중국 사절의 영송과 접대를 직접 담당했음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보면, 예빈성의 일차적 업무는 사절에 대한 擯接 즉 영송과 접대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E1과 E2는 예빈성의 관원 선발 조건에 대한 단서를 일부나마 제공한다. 광종대에 예빈성 관원으로 활동한 장유와 목종대의 예빈성주부 주저는 모두 중국 유경험자 내지는 중국인으로,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 사정에 정통한 인물들이었다. 아마도 고려는 장유나 주저와 같이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 사정에 밝은 사람들로 예빈성 관원을 충당해 사절의 영송과 접대를 맡도록 하여 고려와 중국 사이의 외교의 가교 역할로 삼았던 듯하다.

42) 『新唐書』 권48, 志38 職官3 鴻臚寺. 司儀署 … 掌凶禮喪葬之具.

43) 『高麗史』 권94, 列傳7 皇甫俞義. 附張延祐 延祐 瀛州尙質縣人 新羅末 父儒 避亂吳越 後還國 光宗以解華語 累授客省 每中國使至 必使儒擯接之.

44) 『高麗史』 권3, 世家3 穆宗 8년. 是歲 宋溫州文士周佇來投 授禮賓注簿.

## 2) 외국인 관리

예빈성은 외국인의 관리를 담당하였는데,<sup>45)</sup> 그 가운데 하나가 빈객에 대한 대우의 문제 즉 예물의 하사와 연향의 제공을 관리하였다.

F1. 병신일에 서여진의 추장 高之知 등 12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예빈성에서 아뢰기를, “고지지 등은 작년에 平虜와 寧遠의 두 城을 개척할 때에 자못 공로가 있었으므로 예물을 넉넉하게 내려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이를 따랐다.<sup>46)</sup>

F2. 5월 을사일에 叅知政事 異惟忠에게 명하여 서여진의 寧遠將軍 高之知 등 13인에게 禮賓寺에서 잔치를 베풀고 例에 따라 물품을 내려주었다.<sup>47)</sup>

F3. 사신이 재배하고 성상의 체후를 아뢴다. … 閣使가 客省에서 茶酒食을 내리라는 敎가 있었음을 전하면 사인의 구령에 따라 재배하고 인도하여 전문으로 나간다.<sup>48)</sup>

F1은 1042년(정종 8)에 서여진의 추장 高之知 등 12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을 때 예빈성이 그들의 공로를 참작하여 예물을 후하게 내려줄 것을 청한 내용이다. F2는 고지지가 1064년(문종 18)에 다시 고려에 오자 叅知政事에게 명을 내려 예빈성[禮賓寺]에서 향연을 베풀고 예에 따라 물품을 내려준 일이다. F3은 북조 황제의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인 「迎北朝詔使儀」에서 수조의식을 마치고 연례를 베푸는 과정에서 북조의 상절과 중절에게 예빈성[客省]에서 차와 酒食을 내려준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상의 F1~F3은 모두 예빈성이 빈객에게 연향을 베풀고 물품을 하사하는 일을 관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런가 하면 예빈성은 來投者에 대한 관리도 담당하였다.

F4. 신미일에 예빈성에서 아뢰기를, “송 都綱 黃忻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은 자식 蒲安과 世安을 이끌고 來投하였는데, 82세의 어머니가 본국에 있어 슬프고 그리울 뿐입니다. 청컨대 장남 포안을 돌려보내 공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월나라 새도 남쪽 가지에 집을 짓는다고 하였으니 하물며 사람일진데”라고 하며 이를 허락하였다.<sup>49)</sup>

F5. 8월 기미일에 서여진의 漫豆 등 17인이 가족을 거느리고 來投하였다. 예빈성에서 아뢰기를, “옛 제도에는 우리나라의 변방 사람으로 일찍이 蕃賊에게 납치되었다가 고향을 생

45) 사례를 통해 볼 때, 예빈성의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여진 추장·송 도강·내투자·귀화인 및 탐라 성주 등으로 그 층위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사료 F5(『高麗史』 권12, 世家12 예종 1년 2월 辛卯)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려에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을 예빈성에서 관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46) 『高麗史』 권6, 世家6 靖宗 8년 2월 丙申. 西女眞酋長高之知等十二人來 獻土物 禮賓省奏 之知等 於往年平虜寧遠兩城拓開之時 頗有勞效 請優賜禮物 從之.

47) 『高麗史』 권8, 世家8 文宗 18년 5월 乙巳. 命叅知政事異惟忠 饗西女眞寧遠將軍高之知等十三人于禮賓寺 賜例物.

48) 『高麗史』 권65, 禮7 賓禮 迎北朝詔使儀. 使臣再拜 奏聖體 … 閣使傳 有敎賜客省茶酒食 舍人喝 再拜引出殿門.

49) 『高麗史』 권7, 世家7 文宗 9년 9월 辛未. 禮賓省奏 宋都綱黃忻狀稱 臣携兒蒲安世安來投 而有母年八十二在本國 悲戀不已 請遣還長男蒲安供養 王曰 越鳥巢南枝 況於人乎 許之.

각하여 스스로 돌아온 자와, 宋人으로 재능이 있는 자 외에 흑수여진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두 등도 또한 옛 규정에 의하여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하였다. 禮部尙書 盧트이 아뢰기를, “만두 등은 비록 무지한 사람들이나, 義를 사모하여 왔으니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山南의 州縣에 거처하게 하고 編戶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자, 이를 따랐다.<sup>50)</sup>

F6. 신묘일에 예빈성에서 아뢰기를, “高亂 등이 遼에서 내려준 官誥를 바치고 고려의 爵命을 받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그 제의를 따라 中尹을 내려주었다.<sup>51)</sup>

F4는 1055년(문종 9)에 예빈성이 내투자인 송나라 도강 黃玠의 장남을 귀환시켜 늙은 노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조정에 청하여 허락을 얻은 일이다. F5는 1081년에 서여진 漫豆 등이 내투를 청하자, 예빈성이 舊制에 어긋남을 근거로 하여 수용 불가를 주장한 내용이다. F6은 1106년(예종 1)에 예빈성이 서여진인 高亂 등에게 작호를 내려 줄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은 일이다. 위의 F4~F6은 모두 예빈성이 내투자의 수용 여부 결정에서부터 귀화인의 고충 해결 및 작호의 하사 등과 같은 상당히 포괄적인 외국인 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관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예빈성은 귀화인을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F6의 高亂은 1079년(문종 33)에 歸德將軍의 자격으로 고려에 와서 낙타를 바친 일이 있는데,<sup>52)</sup>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1106년에는 예빈성의 주도하에 中尹의 작호를 받았다. 이는 예빈성이 고란의 그간의 행적과 작호 수여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 3) 대외 업무

예빈성은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 외에 직접 대외 업무에도 참여하였는데, 가장 많이 발견되는 사례가 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이었다.

G1. 이해에 예빈경 邢順 등을 후당에 보냈다.<sup>53)</sup>

G2. 광평시랑 韓玄珪와 예빈경 金廉을 후진에 보내어 嗣位를 고하고 드디어 거란을 격파한 것을 하례하였다.<sup>54)</sup>

G1은 예빈성 관원으로서 사절의 임무를 수행한 가장 이른 시기의 일로, 935년(태조18)에 예빈경 형순을 후당에 파견한 내용이다. G2는 994년(혜종 1)에 고려 태조의 뒤를 이어 혜종의 사위를 알리기 위해 예빈경 김렴을 후진에 파견한 기록이다.

50) 『高麗史』 권9, 世家9 文宗 35년 8월 己未. 西女眞漫豆等十七人挈家來投 禮賓省奏曰 舊制 本國邊民 曾被蕃賊所掠 懷土自來者與宋人有才藝者外 若黑水女眞並不許入 今漫豆亦依舊制遣還 禮部尙書盧坦奏曰 漫豆等雖無知之俗 慕義而來 不可拒也 宜處之山南州縣 以爲編戶 從之.

51) 『高麗史』 권12, 世家12 睿宗 1년 2월 辛卯. 禮賓省奏 高亂等請納遼所授官誥受國爵命 王從之 授中尹.

52) 『高麗史』 권9, 世家9 文宗 33년 6월 癸亥. 西女眞歸德將軍高亂等二十人來 獻駱駝.

53)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18년 12월. 是歲 遣禮賓卿邢順等如唐.

54) 『高麗史』 권2, 世家2 惠宗 1년. 遣廣評侍郎韓玄珪 禮賓卿金廉如晉 告嗣位 遂賀破契丹.

『高麗史』 및 중국 정사에서 발견되는 고려전기 예빈성 관원의 사행 기록은 G1에 보이는 935년의 예빈성 형순을 시작으로 1208년(희종 4) 禮賓卿 池利中 사례<sup>55)</sup>까지 대략 92명이 발견되며, 이들은 고주사·절일사·방물사 등의 다양한 사명을 띠고 중국에 파견되었다.

고려는 사절 인선 시에 交聘을 관장하는 특정 관서에 치중하지 않았다. 예컨대 송에 사절을 파견하는 경우 고려의 핵심 관서인 상서6부의 상서와 시랑을 주축으로 하는 외에 비슷한 품계의 낭사와 어사대·한림원·추밀원 및 일부 寺·監의 관원을 여기에 충당하였다.<sup>56)</sup>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유독 예빈성 소속 관원의 사절 파견 사례가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추정컨대 예빈성에 속한 관원들이 다른 시의 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사절로 발탁된 데에는 그들의 업무 특성상 채득하게 되는 대외관계에 대한 높은 식견과 외교 의례에 대한 해박함 등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예빈성 관원들의 대외관계 현안에 대한 지식과 외교의례에 대한 이해는 사절 활동 시에 큰 이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예빈성은 외교사절로서 대외활동을 하는 한편, 외교문서 발행을 통해서도 대외 업무에 직접 간여하였다.

H1. 희령 2년에 그 나라의 예빈성이 福建轉運使 羅拯에게 첩을 보내어 말하기를, “본조의 상인 황신·홍만이 와서 말하기를, 전문사가 밀지를 받들고 와서 (고려와) 접촉하여 通好토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국왕의 뜻을 받들어 말씀드립니다. … 지금 황신·홍만의 西還에 公狀을 부치니, 답장을 받아 보고서 즉시 예를 갖추어 조공하겠습니다.<sup>57)</sup>

H2. 9월에 西頭供奉官 安稷崇을 보내어 宋에 갔다. 禮賓省이 明州에 첩을 보내어 말하기를, “지난해 6월에 進奉使 金緣에게 回諭하여, ‘내년에 다시 禋祀를 맞게 되니, 국왕에게 거둬 보고하여 사신을 보내어 입조해 大禮에 참관토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有司에게 명하여 준비하였는데, 갑자기 母后께서 흥서하여 미처 사신을 보내어 情禮를 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sup>58)</sup>

H1과 H2는 모두 예빈성이 발행한 첩을 송의 福建轉運使와 明州에 각각 보낸 사례이다. H1은 1069년(문종 23)에 고려 예빈성이 첩을 발행하여 송나라 상인 황신을 통해 나중에게 국교재개 의사를 전달한 기록이다. 이 무렵 고려와 송은 거란의 발호로 인해 장기간 국교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1068년(문종 22) 7월에 송 황제 神宗이 江淮兩浙荊湖南北路都大制置發運使 羅拯에게 명하여 상인 황신으로 하여금 국교 재개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였고,<sup>59)</sup> 여기에 고려가 호응하여 H1에 보이는 바의 예빈성이 발행한 문서를 전달하였으며, 이어 1071년 3월에 고려가 民官侍郎 金悌를 송에 파견함으로써<sup>60)</sup> 통교가 재개되었다.

55) 『高麗史』 권21, 世家21 熙宗 4년 8월 庚寅. 『金史』 권62, 表4 交聘表下 泰和八年 10월 己卯.

56) 朴龍雲, 1995·1996,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下)」, 『韓國學報』 81·82 ; 2002, 『高麗社會의 여러 歷史像』, 신서원, 172·173쪽.

57) 『宋史』 권487, 列傳246 外國3 高麗 神宗 熙寧二年. 其國禮賓省移牒福建轉運使羅拯云 本朝商人黃眞洪萬來稱 運使奉密旨 令招接通好 奉國王旨意 形于部述 … 今以公狀附眞萬西還 俟得報音 卽備禮朝貢.

58) 『高麗史節要』 권8, 睿宗 8년 9월. 遣西頭供奉官安稷崇如宋 禮賓省移牒明州曰 去年六月 進奉使金緣回諭 來歲又當禋祀 申覆國王 遣使入朝以觀大禮 已令有司備辦 忽母后薨逝 未遑遣使以達情禮

59) 『高麗史』 권8, 世家8 文宗 22년 추7월 辛巳. 秋七月 辛巳 宋人黃眞來見言 皇帝召江淮兩浙荊湖南北路都大制置發運使羅拯 … 於是 拯奏遣眞等來 傳天子之意.

60) 『高麗史』 권8, 世家8 文宗 25년 3월 庚寅. 三月 庚寅 遣民官侍郎金悌 奉表禮物如宋 初黃眞之還 移

H1은 이러한 양국 간 국교 회복이라는 최대 외교 현안의 해결 국면에서 “公狀”의 성격을 띠고 예빈성의 명의로 발행된 ‘첩’ 형식의 외교문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교빙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부가 아닌 예빈성이 첩을 직접 발행했을까. 연구에 따르면, 첩은 고려와 주변 여러 나라들 사이의 외교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대개 외교 현안의 발생 시에 실무적인 사안의 논의를 위해 실무 관청 또는 외교의 말단 기관 사이에서 주고받는 문서였다.<sup>61)</sup> 결국 예빈성이 고려와 송의 통교재개라는 외교 현안의 실무 관서로서 외교문서를 직접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H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H2는 1113년(예종 8)에 예빈성이 송의 지방 관사인 명주에 첩을 보내 고려가 송 조정의 禮祀에 불참하게 된 저간의 사정을 전달한 내용이다. 당시 고려 사절단은 예성항을 출발해 바다를 건너 송의 명주를 거쳐 수도 개봉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었다.<sup>62)</sup> 따라서 고려 사절단은 중간 기착지인 명주에 이르러 예빈성이 발행한 첩을 송의 지방 관서인 명주에 전달하고, 고려 사절단의 파견 목적 및 연사 불참 사유 등을 송 조정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던 듯하다. 이를 통해 보면, 예빈성은 국가 간 외교 현안의 발생 시에 외교사절로서 때로는 외교문서를 발행하는 실무 관서로서 일선 외교창구의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예빈성은 비공식 사절 왕래의 경우에 사절의 역할을 하는 송 상인에게 체류 공간을 제공하였는가하면,<sup>63)</sup> 대외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譯語官의 교육과 선발에도 간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빈과 외교의 실무 기관인 예빈성에서 역어관의 선발 시험을 치른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sup>64)</sup> 이렇게 선발된 역어관은 실제 외국 사절의 고려 내방 시에 접반사 및 여러 관원들과 함께 사절 영송에 참여함으로써 외교 일선에서 활동하였다.<sup>65)</sup>

#### 4. 예빈성의 운영상 특징

앞서 예빈성과 여기에 속한 관원들의 여러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이의 구체적인 운영상

牒福建 請備禮朝貢 至是 遣使由登州入貢.

61) 김보광, 2022, 「고려전기 <禮賓省牒>의 書式 복원과 외교상의 의미」, 『東方學志』 197, 33쪽.

62) 고려와 송의 사절 왕래에는 주로 해로를 이용하였으며, 여기에는 北路와 南路가 있었다. 북로는 산둥반도의 登州와 禮成江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항로로 상고시대부터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이후 1073년(문종 27)에 고려의 요청에 따라 교통로가 明州와 群山島-馬島-紫燕島-禮成江을 연결하는 남로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거란이 강성해짐에 따라 북로가 위험해졌을 뿐 아니라 남중국 연안 각 항구에서 국제무역이 활발해졌기 때문이었다(金渭顯, 1978, 「麗宋關係와 그 航路考」, 『關大論文集』 6 ; 1985, 『遼金史研究』, 裕豐出版社, 210~217쪽). 고려와 송의 항로에 대해서는 김상기, 1959, 「해상의 활동과 문물의 교류-예성항(禮成港)을 중심으로-」, 『국사상의 제문제』 4, 국사편찬위원회 ; 1974, 『東方史論叢』, 서울大出版部 ; 羅鍾宇, 1995, 「5대 및 송과의 관계」,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 金澈雄, 2004, 「高麗와 宋의 海上貿易路와 交易港」, 『中國史研究』 28 ; 李錫炫, 2011, 「北宋代の 使行 旅程 行路考-宋 入境 以後를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114 ; 李鎮漢, 2011, 「高麗 太祖代 對中國 海上航路와 外交·貿易」, 『한국중세사연구』 33 등의 연구가 있다.

63) 『宋史』 권331, 列傳90 羅拯. 拯使閩時 泉商黃謹往高麗 館之禮賓省.

64) 『高麗史』 권21, 3월 丁巳. 冢宰崔詵承宣于承慶坐禮賓省 試取譯語.

65) 『高麗圖經』 권36, 海道3 群山島·권37, 海道4 馬島.

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예빈성의 운영상 특징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高麗史』 백관지에 의하면, 예빈성은 “掌賓客燕享”이라 하여, 빈객에게 연향을 베푸는 일을 관장하였다.

I1. 장연우는 瀛州 尙質縣 사람이다. 신라 말에 부친 張儒가 吳越로 피난 갔다가 후에 還國하였다. 光宗은 (그가) 중국어를 잘하므로 누차 客省에 제수하였고, 매번 중국 사절이 오면 반드시 장유로 하여금 擯接케 하였다.<sup>66)</sup>

I1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려 초 예빈성의 관원 임명과 주요 업무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I1에 의하면, 장유는 신라 말 혼란기에 오월로 피난 갔다 고려에 돌아온 인물로, 광종이 그의 중국어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영빈 기구인 예빈성[客省] 관원으로 발탁해 중국 사절이 도착하면 반드시 그가 맞이하여 접대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보면, 장유는 중국 체류 경험과 이때 얻은 중국어 능력을 인정받아 예빈성 관원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사절의 고려 내방 때마다 영송과 접대를 담당하였다. 이제 다음의 기록을 보자

I2. 주저는 송 宋溫州人이다. 목종 때에 상선을 따라 왔는데, 학사 蔡忠順이 그가 재주가 있음을 알고 긴밀히 왕에게 아뢰어 머물게 하였다. 처음에 禮賓省注簿로 임명하였다. ... 성품은 겸손하고 공손하였고, 문필에 능하여 외교문서[交聘辭命]가 그의 손에서 많이 작성 되었으므로 은총과 대우가 비할 수 없었다.<sup>67)</sup>

I2는 송나라 출신 귀화인 주저에 관한 내용이다. 주저는 1005년(목종 8)에 고려에 내투한 송나라 사람으로,<sup>68)</sup> 학사 채충순이 그의 재주를 알아보고 목종에게 아뢰어 예빈성 관원으로 발탁되었다. 그러면 채충순이 알아보았다고 하는 주저의 재주는 무엇이였을까.

I1과 I2에 의하면, 장유와 주저는 중국 유경험자 내지는 중국인으로 모두 중국어 능한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주저의 경우 중국어 능력 외에 문필에도 능하여 “외교문서[交聘辭命]”가 다수 그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아마도 채충순이 알아보았다는 재주는 바로 이 문장능력이었을 것이다. 앞장에서 예빈성이 외교문서의 발행 주체로서 대외 업무에 직접 간여하고 있는 정황을 살펴보았는데, I2의 주저같은 인물들이 예빈성에서 외교문서의 작성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장유와 주저 사례로 볼 때, 예빈성은 본래 사절에 대한 영송과 접대의 업무를 주로 담당 하였으나, 점차 관장 사항이 대외 업무로 확대·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I3. 恭睿大后가 붕어하자 大金國에서 사신을 보내어 위문하므로 조서를 내려 공을 接伴使

66) 『高麗史』 권94, 列傳7 皇甫俞義. 附張延祐 延祐 瀛州尙質縣人 新羅末 父儒 避亂吳越 後還國 光宗以解華語 累授客省 每中國使至 必使儒擯接之.

67) 『高麗史』 권94, 列傳7 周佇. 周佇 宋溫州人 穆宗時 隨商舶來 學士蔡忠順 知其有才 密奏留之 初授禮賓省注簿 ... 性謙恭 工文翰 交聘辭命 多出其手 恩遇無比.

68) 『高麗史』 권3, 世家3 穆宗 8년. 是歲 宋溫州文士周佇來投.

로 삼았다. 客使가 慈悲嶺에 이르러 시를 남기자 공이 즉시 붓을 잡고 화답하였다. 글의 기상이 맑고 뛰어났으니, 개경에서는 서로 다투어 전하고 베끼며 ●●로 삼았다. 교하여 檢校禮賓卿을 더하고 本職을 행하도록 하였다. 朗官으로부터 亞卿에 이르기까지 전후로 都兵馬·迎送·右軍·中軍 등의 判官을 ●●겸대하였다.<sup>69)</sup>

I4. 금의 사신이 다시 이르자 공이 伴行하였는데, 움직임이 틀림없이 예에 부합하니 사신이 그를 보고 감동하는 기색이 있었다. 예빈소경으로 벼슬을 옮기고 국자사업 사관수찬으로 고쳤다. 일찍이 使命을 받들고 금나라에 갔는데, 때마침 韃靼의 군사가 일어났으므로 바로 돌아왔다.<sup>70)</sup>

I3은 명종대에 檢校禮賓卿을 역임한 진광인의 관력을 기술한 내용이다. I3에 의하면, 진광인은 1184년(명종 14)에 금의 弔慰使 大將軍 大仲允이 고려에 왔을 때에 접반사로 임명되어 활동하였고, 이때의 공을 인정받아 검교예빈소경이 되었으며, 이후 영송도감의 관관도 역임하였다.

진광인이 역임한 일련의 관직은 대개 사절의 영송과 접대 및 외교 업무에 직접 연관되는 관서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추정컨대 진광인은 1184년의 접반사 경력을 인정받아 이후 지속적으로 대외 업무를 전담하는 관서의 관원으로 발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I4는 명종대에 예빈소경을 역임한 한광연의 관력을 기술한 것이다. 한광연은 1213년(고종 즉위)에 금 사절이 고려에 왔을 때 접반사로 활동하였는데, 이때의 공을 인정받아 예빈소경에 임명되었으며, 후에는 금에 파견되는 사절로 발탁되기도 하였다. 한광연 역시 접반사를 시작으로 이후 대외 업무를 전담하는 관서의 관직 및 사절로 연이어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명종대에 활동한 장충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그는 금에 사행한 이후 선배사로서 사절을 맞이했으며, 이후 영송녹사, 영송판관을 거쳐 예빈성의 수장인 관예빈성사에 올랐다.<sup>71)</sup>

이처럼 예빈성에 소속한 관원들의 활동과 관력을 살펴보면, 예빈성은 본래는 사절의 영송과 접대를 주로 관장하였으나 점차 그 역할이 대외 업무로 확대·전환되었으며, 여기에 보임되는 관원들의 인선 역시 대외 업무 경력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전문화의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예빈성 운영의 변화는 고려의 대외정책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다음을 보자.

J1. 병신일에 서여진의 주장 高之知 등 12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예빈성에서 아뢰기를, “고지지 등은 작년에 平虜와 寧遠의 두 城을 개척할 때에 자못 공로가 있었으므로 예물을 넉넉하게 내려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이를 따랐다.<sup>72)</sup>

J2. 5월 을사일에 叅知政事 異惟忠에게 명하여 서여진의 寧遠將軍 高之知 등 13인에게

69) 「晉光仁墓誌銘」 恭睿太后崩 大金國遣使慰問 詔以公爲接伴使 客使至慈悲嶺留詩 公卽援筆酬和 詞氣清絕 都下競相傳寫爲●● 敎可檢校禮賓卿行本職 自郎官至亞卿 前後●●帶都兵馬迎送右軍中軍等判官.

70) 「韓光衍墓誌銘」 金使復至 公伴行 動必中禮 使爲之動色 遷禮賓少卿 改國子司業史館修撰 嘗奉使如大金 會韃靼兵起 卽還.

71) 「張忠義墓誌銘」.

72) 『高麗史』 권6, 世家6 靖宗 8년 2월 丙申. 西女眞酋長高之知等十二人來 獻土物 禮賓省奏 之知等 於往年平虜寧遠兩城拓開之時 頗有勞效 請優賜禮物 從之.

禮賓寺에서 잔치를 베풀고 例에 따라 물품을 내려주었다.<sup>73)</sup>

J3. 계묘일에 서여진 歸德將軍 高亂 등 20인이 와서 낙타를 바쳤다.<sup>74)</sup>

J4. 기묘일에 北蕃 酋長 高亂과 阿於大 등 42인이 來朝하였다.<sup>75)</sup>

J5. 신묘일에 예빈성에서 아뢰기를, “高亂 등이 遼에서 내려준 官詔를 바치고 고려의 爵命을 받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왕이 그 제의를 따라 中尹을 내려주었다.<sup>76)</sup>

J1~J5는 예빈성의 외국인 관리 사례에 해당한다. 먼저 J1은 1042년(정종 8)에 서여진의 酋長 高之知 등 12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자, 예빈성이 그들이 전년에 城을 개척하는데 공로가 있었다하여 예물을 후하게 내려줄 것을 청한 내용이다. J2는 1064년(문종 18)에 寧遠將軍 고지지가 다시 고려에 오자 叅知政事 異惟忠에게 명을 내려 예빈성에서 향연을 베풀고 예에 따라 물품을 내려준 일이다.

J1과 J2의 고지지는 동일 인물로 보인다. 그런데 J1의 고지지는 서여진 추장, J2의 고지지는 영원장군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J2에서 고지지가 띠고 있는 영원장군은 고려의 무산계이다.<sup>77)</sup> 고려는 향리·탐라 왕족·여진 추장·노령의 병사 등에게 무산계를 수여하여 그들에게 영예를 부여하고 지위의 인정과 우대하는 뜻을 보이는 한편 회유와 충성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sup>78)</sup>

1042년에 여진 추장이었던 고지지가 1064년에 영원장군으로 지칭되고 있는 것은 사료 상에는 발견되지 않지만, 그가 1042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 고려로부터 무산계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때 예빈성이 J1과 J2에서와 같이 고지지의 來朝·來獻 이력과 공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관작과 예물의 수여를 조정에 건의했을 것이다.

J3은 1079년(문종 33)에 서여진 歸德將軍 高亂이 고려에 와서 낙타를 바쳤다는 기록이다. J4는 1106년(예종 1) 2월 기묘일(16)에 북번 추장 고란과 아어대가 내조한 일이다. J5는 동년 2월 신묘일(28)에 예빈성에서 고란이 요로부터 받은 관고를 바치고 고려의 작호를 받기 원한다는 것을 고려 조정에 아뢰어 작호를 받도록 한 일이다. J3~J5의 고란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고려는 건국 이래 북방에 산거하고 있던 北蕃 즉 여진의 내조와 내현이 빈번하였는데,<sup>79)</sup> 이들은 방비가 소홀한 곳을 틈타 侵寇하기도 했다. 이에 고려는 여진의 내조를 허용하고 협조적인 인물이 내조하고나 공로를 세운 경우 물품을 지급하거나 관작의 하사를 통해 회유하였다.

J4에 고란과 함께 고려에 내조했던 아어대의 경우 完顏部の 세력 확장에 따른 지역 분쟁을 피해 여진 지역을 옮겨 다닌 인물로 추정되는데,<sup>80)</sup> 그렇다면 아어대와 함께 내조한 고란

73) 『高麗史』 권8, 世家8 文宗 2년 5월 乙巳. 命叅知政事異惟忠 饗西女眞寧遠將軍高之知等十三人于禮賓寺 賜例物.

74) 『高麗史』 권9, 世家9 文宗 33년 6월 癸亥. 西女眞歸德將軍高亂等二十人來 獻駱駝.

75) 『高麗史』 권12, 世家12 睿宗 1년 2월 己卯. 北蕃酋長高亂阿於大等四十二人來朝.

76) 『高麗史』 권12, 世家12 睿宗 1년 2월 辛卯. 禮賓省奏 高亂等請納遼所授官詔受國爵命 王從之 授中尹.

77) 『高麗史』 권78,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文宗 30년 兩班田柴科.

78) 박용운, 1997, 「高麗時代의 官職과 官階」, 『高麗時代 官階官職 研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44~47쪽.

79) 추명엽,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21~22쪽.

80) 추명엽,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27쪽.



역시 고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듯하다. 이는 과거 고란이 귀덕장군이라 불리었으며, 북번의 주장이자 요로부터 관고를 받았다는 점과 예빈성이 고려 조정에 주청하여 그에게 中尹의 작호를 수여하도록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이때 고란이 받은 중윤은 고려의 鄉職이다. 고려에서 향직은 향리 뿐 아니라 무산계를 가진 자·군인·양반·서리 외에 여진의 추장에게도 수여되었다. 특히 여진 추장에 대한 향직의 수여는 앞서의 무산계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영예를 부여하고 지위의 인정과 우대의 뜻을 보이는 한편 그들을 고려의 질서체계에 내로 흡수하여 회유와 충성을 이끌어내는 기능도 하였다.<sup>81)</sup>

요컨대 고려는 예빈성의 운영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대외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주변 민족 또는 국가와의 관계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빈성은 고려 초에 해당하는 921년(태조 4) 내지는 적어도 935년(태조 16) 이전에 설치되어 영빈 기구로서 활동하였다. 아울러 고려는 거란과의 1차 전쟁 이후 거란을 우위로 하는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고려의 대외관계의 변화는 결국 거란 사절의 영송과 영접 등에 관련된 영빈 기구와 외교의례의 정비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예빈성이 객성으로 불리게 된 듯하다.

다음으로 『高麗史』 백관지에는 예빈성의 주요 관장 사항을 “賓客燕享”이라 기록하고 있으나, 예빈성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는 사절의 영송과 접대를 담당하였고,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대우의 문제, 연향의 제공과 예물의 하사 및 지속적인 내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외국인 관리를 담당하였다. 나아가 예빈성은 외교사절의 역할 및 외교문서의 발행 주체로서 대외 업무에 직접 간여하는 실무 관서로서 외교 창구의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빈성의 운영상 특징을 정리하면, 예빈성은 본래는 사절의 영송과 접대를 주로 하였으나 점차 그 역할이 대외 업무로 확대·전환되었으며, 여기에 보임되는 관원들의 인선 역시 대외 업무 경력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전문화의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고려는 예빈성의 운영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외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주변 민족 또는 국가와의 관계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81) 박용운, 1997, 「高麗時代의 官職과 官階」, 『高麗時代 官階官職 研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48·49쪽.

## 김규록, 「고려전기 迎賓 관부의 설치와 운영—禮賓省을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문

최종석(동덕여대)

토론 의뢰를 거절할 수 없어 토론의 임무를 맡긴 했지만, 발표문 내용은 토론자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예빈성(객성)을 관심 있게 검토한 적도 없고, 관제 전반에 대해 이해 정도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발표문이 공부거리가 되어 유익하였다. 발표문의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데 급급한 수준이긴 하나, 토론자의 임무가 있다 보니 타당성이나 설득력 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언급하는 것 위주로 토론문을 작성해 보았다.

### 1. 예빈성 설치 시기

예빈성 설치 시점에 대한 추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발표자에 따르면, 『고려사』 백관지에서 예빈성을 두었다고 하는 태조 4년(921) 내지는 예빈성 사례가 확인되는 태조 18년(935) 이전에 적어도 예빈성이 설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수춘부(춘부)가 예부로, 봉빈부가 예빈성으로 바뀌었다는 『삼국사기』 직관지를 언급하고 태조 6년(923) 춘부 사례의 확인을 주목하면서, ‘예빈성 역시 춘부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예빈성이 춘부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을 것이라는 언급은 설치 시기의 비정에 그다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고, 또한 춘부는 국초에 태봉의 제도를 계승한 기구였을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국초에 봉빈부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예빈성 역시 춘부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은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다. 한편, 이와 별개로 설치 시점의 추정 시간대가 넓어 좀 더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2. 예빈성에서 객성으로

『고려사』 백관지에 의거해서 성종 14년(995)에 예빈성에서 객성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986년부터 1076년까지의 시기 동안 예빈성과 객성의 혼칭을 언급하고 있다. 이 양자 간의 논리적 연결이 매끄럽지 못해 교통정리가 필요한 듯싶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공식적 개정과 예빈성과 객성의 혼칭은 공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공존의 논리에 대한 부연설명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발표자는 성종 14년(995)의 관제 개정에 영빈 기구인 예빈성이 포함된 이유를, 거란 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새로운 외교 관계 수립에 따른 변화—거란 사절의 영송과 영접 등에 관련된 영빈 기구와 외교의례의 정비—에서 찾았으나, 그러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문제 제기 자체가 매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추정이 타당성이 크기 위해서는 성종 14년(995)의 관제 개정은 그 폭이 크지 않고 대외 관련 관부에 집중되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많은 관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성종 14년(995)의 관제 개정을 관통하는 특정 배경이 있었을 것이고, 이 일환에서 객성으로의 개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예빈성 운영

발표자는 예빈성의 운영이 『고려사』 백관지에 소개된 ‘빈객에게 연향을 베푸는 일을 관장하는 관부’로 국한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토론자는 빈객에게 연향을 베푸는 일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개된 기능이 빈객에게 연향을 베푸는 일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시변통으로 볼 수 있는 일과 본래 업무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3장 2절인 ‘외국인 관리’에 소개된 예빈성 기능은 ‘빈객에게 연향을 베푸는 일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F 사례들이 그러하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3장 3절인 ‘대외 업무’이다. 우선, 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은 예빈성 업무라 단정해서 보긴 어려울 것이다. 예빈성 관원이 빈번히 사신으로 선발되었긴 하나, 사신으로의 선발은 예빈성 관원으로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업무 특성상 예빈성 관원 가운데 사신으로 선발될만한 재목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예빈성의 첩 발송은 통상적인 업무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 고려전기 당시 국가 간에 실무 관청이나 말단 기관이 문서를 주고받는 일은 드물었고, 이와 맞물려 어떤 관부가 이 일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이는 都監 업무와 같은 임시변통 식의 일 처리에 가까웠을 것이다. 예빈성의 첩 발행은 이러한 성격의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예빈성이 대외 업무를 관장하였다고 하는 식의 규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4. 예빈성 운영상의 특징

I1·2 자료인 장유와 주저의 사례를 통해서 예빈성의 관장 사항이 점차 대외 업무로 확대·전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장유의 사례는 그가 빈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음을 말해주고, 주저의 사례는 그가 외교문서 작성에 많이 간여한 것을 말해줄 뿐 그것이 예빈성과 관련 있음을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진 않다. 외교문서의 빈번한 작성은 오히려 문한 관련 관직을 역임한 것과 관련 있는 듯싶다.

I3·4 자료의 경우도 ‘예빈성의 역할이 대외 업무로 확대·전환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

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듯싶다. 이들 사례는 금 사신의 접반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거나 伴行 일을 잘한 데 따라 예빈경 관직으로 옮겨간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예빈성 역할의 대외 업무로의 확대·전환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 사신을 맞이하는 일에서 보인 능력이 빈객을 접대하는 일에 잘 맞는다고 보아 이들을 예빈경 관직에 등용하였다고도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 5. 예빈성과 예부

‘예빈성의 역할이 대외 업무로 확대·전환되었음’은 예부 등 여타 대외 업무 담당 관서의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기에, 예빈성의 역할 확대를 더 큰 틀인 대외 업무 담당 관서들 사이에서의 역할 조정의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고려전기 사면의례의 구성과 의미

윤채운(충남대 석사 졸업)

1. 머리말
2. 『高麗史』 禮志 사면의례의 구성과 구조
3. 宣赦書儀의 절차와 의미
4. 맺음말

### 1. 머리말

사면이란 국왕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로, 범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감형 또는 면제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sup>1)</sup> 통치자는 사면을 행함으로써 “그의 자비심을 드러내고 천하의 질서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sup>2)</sup> 즉, 사면은 덕치의 발현과 통치자의 위엄성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었다. 사실 국왕의 권위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의례와 상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었다.<sup>3)</sup> 의례는 기존에서 이루어지던 “의식적 관행”<sup>4)</sup>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통치자의 지위를 재확인시킴과<sup>5)</sup> 동시에, 그에 의해 발생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장치였다.<sup>6)</sup> 따라서, 사면의례는 국왕만이 행사할 수 있었던 고유한 권리를 현장에서 직접 발현시키도록 만든 국가의례였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사면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로, 사면 그 자체를 분석한 연구가 그것이다. 사면의 배경과 유형, 실시범위 등을 다루거나<sup>7)</sup>, 시기·왕대별로 심도 있게 연구되었다.<sup>8)</sup>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의례 영역까지 연구가 확대·발

- 
- 1) 신호웅, 1992, 「高麗時代의 赦免制度」, 『何石金昌洙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동간행위원회, 351쪽.
  - 2) Brian E. Mcknight, 1986, 『The Quality of Mercy-Amnesties and Traditional Chinese Justice』, University Press Of Hawaii Honolulu, 4쪽.
  - 3) 하워드 J. 웨슬러, 2005, 『비단갈고 주옥같은 정치』, 고즈원, 74·75쪽.
  - 4) 캐서린 벨, 2009, 『의례의 이해:의례를 보는 관점들과 의례의 차원들』, 한신대학교출판부, 257쪽.
  - 5) 하워드 J. 웨슬러, 2005, 앞의 책, 76쪽.
  - 6) 정동훈, 2005,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역사와 현실』 98, 103쪽.
  - 7) 신호웅, 1992, 앞의 논문 ; 이희덕, 1977, 「高麗時代의 天文觀과 儒敎主義의 政治理念」, 『한국사 연구』 17 ; 한용근, 1986, 「高麗時代의 赦에 關한 研究」, 『慶熙史學』 12·13 ; 홍기표, 2007, 「高麗前期 <天災地變> 관련 詔書 연구」, 『인문과학』 39.
  - 8) 김신혜, 2015, 「고려 예종대 恩賜 정책의 유형과 정치적 성격」, 『한국사학보』 58 ; 윤훈표, 2018, 「고려 전기 赦免 실시의 특징과 행형 체계의 수립 방향」, 『사학연구』 130 ; 2019, 「고려 성종대 실시되었던 사면과 그에 수반된 은전에 대한 분석-특히 宋·遼의 책봉 및 東·西京의 행차 때 실시된 것들을 중심으로」, 『학림』 44 ; 2019, 「고려 후기 赦免의 추이와 각 시기별 특징의 분석」, 『歷

전되어 사면의례의 기초적인 내용과 절차 등이 다루어졌다.<sup>9)</sup> 둘째로, 부수적인 측면에서 사면이 연구되기도 하였다. 형정의 운영 및 법제를 검토하거나,<sup>10)</sup> 『고려사』 예지 항목 설정 및 설립 시기와 공간을 주목하여 사면을 일부 다룬 바 있다.<sup>11)</sup> 기존 연구들은 사면과 관련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위의 연구들은 사면의 실시배경 및 사면의 유형, 나아가 사면의례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피고자 할 사면의례 자체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사면의례의 기초적인 절차에 대해 일부 다룬 연구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단계로서 사면의례의 구성방식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사실, 사면의례는 『高麗史』 禮志에 수록된 여타의 의례보다 국왕권의 기본 요소인 賞罰權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발현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게다가 사면권은 오로지 국왕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특권이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의례 검토는 고려 왕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불가분의 과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왕의 권위가 드러나는 고려전기의 사면의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사면의례에 내재된 여러 의미와 상징성을 살펴봄으로써, 고려전기 사면의례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고려사』 예지에 수록된 사면의례들을 비교·검토하여 사면의례의 구성과 구조를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儀鳳門宣敕書儀의 내용과 절차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찰함으로써 그 의미와 상징성을 밝혀보겠다. 이를 통해 향후 고려전기 왕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史와 實學』 68.

9) 유성국은 ‘儀鳳門宣敕書儀’의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였으며(유성국, 1997, 앞의 논문, 30~34쪽), 이민기는 宣敕儀仗·宣敕鹵簿의 구성과 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의봉문선사서의’의 국왕 鸞駕出宮 장면을 표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민기는 의례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간략한 그림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거나(이민기, 2016, 앞의 논문, 54·55쪽), 김보광은 ‘閣’의 공간을 주목하면서 사면의례 진행 시 국왕의 이동동선(大觀殿→儀鳳門)을 지도로 표시한 바 있다(김보광, 2020, 「고려전기 궁궐 구조와 ‘閣’공간의 의미」, 『개경과 한양의 의례공간을 통해 본 고려와 조선의 국가체제』,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9쪽).

10) 김난옥, 2003, 「高麗前期의 流配刑」, 『한국사연구』 121 ; 김호동, 2007, 「고려 율령에 관한 연구현황」, 『민족문화논총』 37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 경인문화사 ; 문형만, 1964, 「麗代歸鄉考」, 『歷史學報』 23 ; 유성국, 1997, 「高麗時代의 赦免制度」, 『연세법학연구』 4 ; 이세현, 1975, 「麗代 諸王의 天變觀과 恤刑」, 『군산대학교 논문집』 8 ; 전영섭, 2012, 「唐宋元·高麗의 恤刑立法原則과 刑政認識-홀형사상의 原流와 관련하여」, 『중국사연구』 77 ; 채웅석, 1983, 「高麗時代의 歸鄉刑과 充常戶刑」, 『韓國史論』 9 ; 2009, 「고려시대 刑政의 ‘原情’ 認識과 月令 활용」, 『한국중세사연구』 27 ; 2010, 『월령과 국가』, 민속원 ; 한정수, 2000, 「高麗前期 儒敎의 重農理念과 月令」, 『역사교육』 74.

11) 김보광, 2021, 「고려전기 궁궐구조와 국왕의 정치 공간-閣門의 의미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19 ; 2022, 앞의 논문 ; 김유진, 2019, 「고려시대 毬庭의 의례적 활용과 다변성 고찰-고려사 세가기록을 중심으로」, 『民俗學研究』 44 ; 김창현, 2011,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학보』 44 ; 이범직, 1991, 『韓國中世禮思想研究-五禮를 中心으로』, 一潮閣 ; 이현정, 2011, 「고려시대 毬庭에 관한 연구」, 『歷史學報』 212.

## 2. 『高麗史』禮志 사면의례의 구성과 구조

宣敕書儀란 敕書를 선포하는 의례 행위로, 국왕의 권력을 발현시키는 수단이자 만민에게 덕치를 베푸는 매개체였다. 사면이 처음 의례로 기록된 것은 唐代的 ‘宣敕書’로, 당 황제는 이를 통치의 수단으로써 유용하게 사용하였다.<sup>12)</sup> 당시 체제를 정비해야 했던 고려 입장에서 왕권의 발현 수단으로서 의례를 정립하는 일은 중요한 사안이었다.<sup>13)</sup> 그 결과, 고려는 당의 제도와 의례를 참조하여 각종 의례를 마련하였는데,<sup>14)</sup> 사면의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高麗史』禮志 嘉禮條에는 ‘儀鳳門宣敕書儀’, ‘親祀圓丘後肆赦儀’, ‘宥旨賀儀’중 3건의 사면의례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모두 사면의 진행 절차를 정리한 조목들인데, 『高麗史』撰者는 무슨 기준으로 3개의 의례를 구분하여 수록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면의례가 실시된 시기나 절차상의 차이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유지하의’는 ‘敕’보다 낮은 등급인 ‘宥’라는 어휘를 사용하였고<sup>15)</sup>, 고려 후기의 관부명인 ‘僉議府’가 본문 중에 기술된 사실을 고려해볼 때<sup>16)</sup>, 고려 후기의 사면의례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의봉문선사서의’와 ‘친사원구후사사의’에서는 의종대 개칭된 의봉루(神鳳樓→儀鳳樓)의 명칭이 보이고, 참석자 중 왕태자라는 어휘가 등장했다는 점<sup>17)</sup>, 그리고 『고려사』 예지가 참조한 『古今詳定禮文』이 인종 혹은 의종 때에 만들어졌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sup>18)</sup>, 이들은 모두 고려전기의 사면의례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고려사』찬자가 ‘유지하의’를 예지에 별도로 수록한 까닭은 고려전기와는 달라진 사면의례의 내용을 전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고려전기의 사면의례인 ‘의봉문선사서의’와 ‘친사원구후사사의’가 아울러 수록된 이유를 살펴보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봉문선사서의’는 의봉문에서 사서를 선포하는 의례라고 한다면, ‘친사원구후사사의’는 국왕이 친히 원구에서 제사 지낸 뒤 사면을 베푸는 의식이라 하겠다. 의례에 붙여진 명칭만 보면 전자는 의봉문에서, 후자는 원구단에서 사면의례를 거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의례의 거행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고려사

12) 하워드 J. 웨슬러, 2005, 앞의 책, 115~131쪽.

13) 이법직, 1991, 앞의 책, 49쪽.

14) 『大唐開元禮』 권129·130, 嘉禮 宣敕書·皇帝遣使詣諸州宣敕書.

15) ‘宥’가 ‘敕’보다 낮았음은 충렬왕 대 격하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高麗史』 권28, 世家28 忠烈王 2년 3월 甲申. 達魯花赤詰之曰, 稱宣旨·稱朕·稱敕, 何僭也, 王使僉議中贊金方慶·左承宣朴恒, 解之曰, 非敢僭也, 但循祖宗相傳之舊耳, 敢不改焉. 於是, 改宣旨曰王旨, 朕曰孤, 敕曰宥, 奏曰呈).

16) 김창현은 ‘宥旨賀儀’ 내용 중에서 僉議府, 制書, 排舞排가 등장하였음을 고려해 후기의례로 추정하였다. 특히 ‘宥旨賀儀’의 구체적인 편찬 시기로 僉議府의 관직 개수를 고려해 공민왕 11년~18년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공민왕 5년을 기점으로 僉議府는 中書門下省으로 복구되었으나, 同 11년 다시 격하되어 都僉議府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는 同18년 門下府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제작되었다고 보았다(김창현, 2011, 앞의 논문, 57쪽).

17) 김창현, 2011, 앞의 논문, 58쪽.

18) 사면의례가 포함된 『고려사』 예지 가례는 『상정고금예문』을 기반으로 편찬되었는데, 편찬 시기를 두고 이법직은 정치적 상황과 예학의 발전이 맞물린 인종대로 추정하였다(이법직, 1991, 앞의 책, 46~51쪽). 반면, 윤훈표는 사면령을 반포할 때 착용했던 왕의 복식이 의종대 제정되었음을 근거로, 사면의례 역시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윤훈표, 2018, 앞의 논문, 84쪽). 한편, 김창현은 두 의견을 절충하여 인종대 편찬이 기획되고 의종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김창현, 2011, 앞의 논문, 53~61쪽).

『찬자가 두 개의 의례로 나누어 수록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하지만, 뒤에 자세히 살펴볼겠지만 ‘친사원구후사사의’에서도 사서는 의봉문에서 선포되었고, 그 이후에 거행되는 절차도 전자와 큰 차이가 없다. 거행장소의 차이가 아니라면, 의례의 실시 배경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제목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전자에는 사면 실시의 배경이 附記되어 있지 않은 데 반해, 후자에는 원구 제사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고려사』의 찬자가 사면의례를 두 개로 나누어 수록했던 것일까? ‘의봉문선사서의’와 ‘친사원구후사사의’는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두 의례 간의 ‘국왕의 동선’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자.

儀禮	國王의 이동 동선		
	순서	내용	장소
儀鳳門宣赦書儀	移御	中嚴이 울리면 국왕은 초요련을 타고 의봉문으로 이동함.	大觀殿(內部)
	赦免	국왕이 의봉문에 도착하면 백관들의 拜謁 이후, 의례 절차에 따라 讀赦書와 脫柯를 진행함.	儀鳳門(內部)
	移御	朝賀儀가 끝나면 국왕은 평두련을 타고 대관전으로 이동함.	大觀殿(內部)
親祀圓丘後肆赦儀	祭祀	제사를 지낸 후 환궁하는 길에 의봉문 앞에 이름.	園丘壇(外部)
	赦免	국왕은 의례 절차에 따라 讀赦書와 脫柯를 진행함.	儀鳳門(內部)
	移御	국왕은 평두련을 타고 흥례문에서 參謁한 뒤, 대관전으로 이동함.	興禮門(內部) →大觀殿(內部)

<표 1> 국왕의 이동 동선 비교

※ 출처 : 『高麗史』 권68, 志22 禮10 참조

<표 1>은 두 의례의 절차 과정에서 드러나는 국왕의 동선을 표기하여 비교·정리한 것이다. ‘의봉문선사서의’는 국왕이 의봉문으로 移御하여 사서를 선포한 의례였다. 후술하겠지만, 사면이 이루어지기 전날 구정에 의장물을 陳設하고 백관들은 예에 맞춰 習儀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국왕이 가마를 타고 대관전에서 의봉문으로 이어하면, 백관이 열에 맞춰 정렬하고 拜謁하였다. 이후 사서를 낭독하고 죄수들을 모두 풀어주면, 이를 기념하고자 朝賀를 진행하였다. 의봉문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면 국왕은 대관전으로 돌아갔다. 반면, ‘친사원구후사사의’는 원구단에서 제사 지내고 난 뒤 사면을 베푸는 의례였다. 국왕이 제사 후 구정으로 이동하면, 백관들은 열에 맞춰 정렬하고 拜謁하였다. 그리고 사서를 낭독하고 죄수들을 모두 풀어주면, 국왕은 흥례문을 거쳐 대관전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위 내용에서 주목되는 점은 ‘의봉문선사서의’의 경우, 국왕이 대관전에서 의봉문으로 이동하여 사면의례를 실시한 반면, ‘친사원구후사사의’는 원구단에서 제천의례 후 의봉문에 들러 의례를 행했다는 점이다. 즉, 국왕의 동선이 전자는 靑(內部→內部)에서만 움직였다면, 후자는 外部에서 內部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 점을 보아 두 의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왕의 동선’에 있었던 것 같다. 사실 국왕 동선에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례 이전에 거행된 ‘사전행사의 有無’와 관련이 있다. 즉, 후자는 선행의식(園丘)이 거행된 뒤



의봉문으로 와서 진행한 반면, 전자는 사전의례 없이 곧바로 사면을 실시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사면이 실시된 배경들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국왕의 동선 차이는 사면의 실시 배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려에서 사면은 크게 국가의 ① 慶事 혹은 ② 災難이 발생하거나, ③ 국왕이 行幸하였을 때 주로 실시되었다.<sup>19)</sup> 우선, ① 국가적 경사란 왕의 즉위나 왕태자·왕태후의 책봉식과 같은 왕실의 경사 및 국가에서 주관하는 대규모의 불사나 제사 등을 의미하여, 고려에서는 그러한 경사에 의례히 사면이 아울러 거행되곤 했다. ② 고려에서는 국가적인 위기에 사면을 실시하여 상황을 타파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모반을 진압했거나 국왕이 아플 경우, 또는 壽星·日蝕·雲疊·水害·蟲災·蝗災·旱災와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사면이 선포되었다. 마지막으로 ③ 행행에서도 사면이 자주 이루어졌다. 고려의 국왕들은 제사를 올리거나 민심을 慰撫하거나 勸農 혹은 救恤 등을 목적으로 궁궐 밖 혹은 도성 밖으로 행차하였고, 위와 같은 정치활동이 끝난 뒤에는 자주 사면이 실시되곤 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실시된 사면 중 국왕의 동선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이 ③의 사례이다. 궁궐이나 도성 밖에서 행해진 정치활동이 끝난 뒤의 연속행위로서 거행되었다는 측면에서 당시 국왕의 동선은 자연스럽게 궐밖에서 궐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궐 밖의 행사 뒤에 ‘친사원구후사사의’의 절차에 따라 의식이 진행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의봉문선사사의’는 궐내에서만 의식이 진행되는 의례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사 때문이건 재난 때문이건 상관없이, 국왕이 궐내에 있으면서 거행된 사면의례라면, ‘의봉문선사사의’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친사원구후사사의’는 원구단에 제사를 지낸 뒤에만 거행되는 사면의례가 아니라, 다양한 궐 밖의 정치활동 후 사면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친사원구후사사의’ 말미에 수록된 아래의 기사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A. 雩祀·圜丘·禘祫享·時享·太廟享·先農·耕籍 등이 있을 때 국왕이 친히 행차한 후 사면을 베풀 때도 모두 이 의식과 같다.<sup>20)</sup>

A는 이미 언급한 바처럼 ‘친사원구후사사의’의 말미에 수록된 것인데, “親幸後肆赦 並同此儀”라는 언급이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雩祀·禘祫享·時享·太廟享·先農·耕籍 등의 사유로 행행한 뒤 사면을 행할 경우, ‘친사원구후사사의’와 동일하게 의식을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雩祀는 기우제를 말하며, 禘祫享과 太廟享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말한다. 그리고 時享은 절기마다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하며, 先農·耕籍은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거나 국왕이 친히 받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국가적인 제사로서, 제사의 장소가 궐 밖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sup>21)</sup> 따라서 우사·체협

19) 사면의 실시배경과 관련하여 기존학자들은 대개 ① 자연적 요인[壽星·日蝕·雲疊·水害·蟲災·蝗災·旱災과 같은 天災地變], ② 정치·사회적 요인[국가적 경사(國王即位, 王太子·王太后冊封式, 誕日), 國際, 行幸, 謀反鎮壓, 不豫, 佛事, 對外關係] 등으로 분류하였다. 필자 또한 이에 대해선 큰 이견은 없지만 ‘行幸’과 같은 외부로의 동선을 설명하기 위해 본문과 같이 구분하였다.

20) 『高麗史』 권68, 志22 禮10 親祀圜丘後肆赦儀. 雩祀·圜丘·禘祫享及時享·太廟享·先農·耕籍, 親幸後肆赦, 並同此儀.

21) 『高麗史』 권70, 志24 樂1 雅樂을 보면, 太廟享·先農을 할 때 鑾駕出宮한다는 규정을 통해, 이들의례는 궁궐 밖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禘祫享·時享이 太廟에서, 雩祀는 圜丘(『高麗史』

향·시향·태묘향·선농·경적의 경우는 ‘친사원구후사사의’와 마찬가지로 본 의식을 마친 뒤 사면의례를 진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국왕의 동선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국왕이 궐 밖에 위치한 장소에서 돌아와 본 의식을 거행한 후, 의봉문으로 돌아와 사면의례를 거행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고려사』의 찬자가 전기의 사면의례를 ‘의봉문선사사의’와 ‘친사원구후사사의’로 나누어 기록한 것은 위와 같은 국왕 동선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사면의례 절차는 단순히 『고려사』 예지의 문구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실제 사례에서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B-1. 〈왕이〉 神鳳樓에 나아가 사면령을 내리고 말하기를, “내가 덕이 부족하지만 과분하게 선왕의 遺命과 아버지의 자애로운 교훈을 계승하여, 외람되이 왕위에 올라 날마다 근신하며 언제나 한가할 겨를이 없었다. 요즈음 옛 전적을 자세히 살펴보니, ‘무릇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근본에 힘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근본에 힘쓰는 것은 효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히 책봉의 의례를 논의하여 나의 친어머니인 왕비를 尊崇하여 王太后로 책봉하려고 하니, 은택이 널리 三韓에 미쳐야 한다. 수도와 지방의 斬罪와 絞罪는 형벌을 면제하고 中途付處할 것이며, 그 이하는 모두 놓아준다. 유배에 처한 자는 가까운 곳으로 옮기거나 관리로 등용하며, 일찍이 사면의 은혜를 입고도 거리를 좁히거나 사면을 받지 못한 자는 찾아가 물어보고 적당히 옮겨주도록 한다. 국내의 명산대천의 여러 신령에게 號를 더하고, 백성 중 나이가 80세 이상인 자와 孝子, 順孫, 義夫, 節婦, 鰥寡孤獨과 병이 위중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도록 한다.”<sup>22)</sup>

B-2. 왕이 직접 太廟에 裕祭를 지내고 9조의 선조(九廟)에게 존호를 올렸으며, 제사를 마치고 齋宮에 이르러 여러 신하의 賀禮를 받았다. 神鳳樓로 돌아와 사면령을 내리고 制書를 내려 이르기, “내가 외람되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여 산하를 거느리고 대업을 지키게 되어, 날마다 덕을 새롭게 닦으니 비록 설 수 있어도 쉬지 않았다. 왕업을 영원히 품기를 빌고, 종묘를 우선하여 정성 다해 받들었다. 이제 직접 협제를 경건하게 모시고 덕음을 널리 퍼서, 온 백성과 더불어 큰 경사를 함께 하고자 하니 전국에 대사면령을 내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sup>23)</sup>

B-3. 삼각산에서 돌아와 약사원에 머물면서 사면을 베풀었다.<sup>24)</sup>

위 B-1은 睿宗 3년 2월 辛卯, 親母 柳氏를 王太后로 책봉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은사를 베푸는 장면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예종이 신봉루에 직접 나아가 사면을 선포하였다는

권54, 志8 五行2)에서, 耕籍(『高麗史』 권62, 志16 禮4 吉禮中祀 籍田 親享儀) 역시 궁궐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모두 ‘친사원구후사사의’에 적용받았음을 알 수 있다.

22) 『高麗史』 권12, 世家12 睿宗 3년 2월 10일 辛卯. 御神鳳樓, 肆赦曰, 朕以涼德, 謬承先王之遺命, 及親闡之慈訓, 叨登大寶, 日愼一日, 寤寐未遑, 近者, 稽于前典, 凡理國家者, 莫先務本, 務本莫過於孝也. 故特講冊禮, 尊崇親母王妃, 封爲王太后, 庶幾恩澤, 廣及三韓. 內外斬絞二罪, 除刑付處, 以下皆原之. 在流配者量移, 乃至敍用, 曾蒙恩宥, 未得移免者, 訪問量移. 國內名山大川神祇, 各加號, 民年八十以上, 及孝子·順孫·義夫·節婦·鰥寡孤獨·篤癡疾者, 賜設分物.

23) 『高麗史』 권7, 世家7 文宗 10년 10월 壬戌. 親裕于太廟, 加上九廟尊號, 祭畢, 御齋宮, 受群臣賀. 還御神鳳樓赦, 制曰, 朕謬承祖禰之遺芬, 統山河而守業, 日新一日, 雖休勿休. 丐懷永於寶圖, 竭奉先於宗祏. 今者, 躬虔裕禮, 遙振德音, 思與群生, 同茲丕慶, 可大赦中外.

24) 『高麗史』 권11, 世家11 肅宗 4년 10월 癸卯. 至自三角山, 次藥師院, 肆赦.

점이다. 신봉루는 의종 즉위년에 의봉루에서 바뀐 명칭으로, 구정으로 통하는 정문이자 궁성 내의 공간에 위치 해있다.<sup>25)</sup> 즉, 궐 내부의 공간에서 사면이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예종의 거취를 살펴보면 사면의례가 시행되는 2월 10일(辛卯) 이전, 1월 27일(戊寅)에 왕태후를 책봉하고<sup>26)</sup>, 2월 5일(丙戌) 수춘궁에서 曲宴을 베풀었다.<sup>27)</sup> 즉, 국왕은 이미 계속해서 궁궐 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B-1은 ‘의봉문선사서의’에 따라 의식이 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B-2는 文宗이 太廟에서 친히 祫祭를 지내고 9묘에 존호를 올린 뒤 사면을 선포한 기사이다. 해당 기사는 왕의 행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문종은 우선 태묘에 직접 가서 제사를 올리고 존호를 올린 뒤 재궁에서 하례를 받은 뒤 의봉루로 돌아와 사면을 선포하고 있다. 즉, 이때의 사면은 국왕이 궐밖에 행차하여 본 의식으로 거행한 뒤 추가로 진행된 의식이었으며, 그에 따라 국왕의 동선이 외부→내부로 이동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사면은 궐 밖에서 의봉루로 자세히 들어간 절차가 있었으므로, 자연히 ‘친사원구후사사의’에 의거해 거행되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고려전기에 거행되었던 모든 사면의례가 ‘의봉문선사사의’와 ‘친사원구후사사의’ 둘 중 하나의 절차로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국왕이 의봉루에 돌아오지 않은 채, 행차했던 장소에서 약식으로 사면을 거행하는 상황도 있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B-3의 사례이다. B-3는 肅宗代 이루어진 기사이다. 숙종은 在位 4년 閏 9월 壬辰에 남경의 神穴寺에 행차를 하었다가<sup>28)</sup>, 환궁하는 과정에서 잠시 藥師院에 머물면서 사면을 내렸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점은 과연 이곳에서 예지에 수록된 절차대로 사면의례가 진행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아마도 그러하지는 않았을 듯하다. 그것은 『고려사』 예지에 기록된 宣敕鹵簿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사면을 선포할 때의 노부는 약 1,200명이 참여할 정도로 대규모의 의장 물품과 인원이 편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長湍의 지방 사원에 불과한 약사원에 그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노부를 수용할 공간이 있었으리라 판단되지 않는다.<sup>29)</sup> 睿宗 6년 8월 甲午 기사를 살펴보면, 天壽寺의 지세가 부족하다는 태사의 건의로, 약사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천수사를 크게 중창시켰다 한다. 이는 약사원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한 점에서 약사원에서 거행된 사면의례는 약식화된 曲敕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사면은 사면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大敕, 敕, 曲敕, 慮囚, 放, 決 등으로

25) 『高麗史』 권17, 世家17 毅宗 즉위년 4월 戊午. 御儀鳳樓, 大敕 ;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 開城府下. 儀鳳樓. 初名神鳳, 後改是名. 卽延慶宮大樓也. 凡祀大廟, 燃燈大會, 設八關會, 皆御此樓, 揭鷄竿大敕, 或飯僧數萬, 或賜中外大酺.

26) 『高麗史』 권12, 世家12 睿宗 3년 1월 戊寅. 尊母柳氏爲王太后. 翌日 諸王宰輔文武常參官以上 進賀賜群臣宴.

27) 『高麗史』 권12, 世家12 睿宗 3년 2월 丙戌. 曲宴諸王·宰樞·近臣于壽春宮, 文武常參官及封冊執事官, 亦賜酒食.

28) 『高麗史』 권11, 世家11 肅宗 4년 閏9월 壬辰. 幸神穴寺.

29) 예종 6년 地勢가 불리하다는 太史의 건의로 ‘藥師院’을 허물고 그 자리에 ‘天壽寺’를 크게 重創하였다(『高麗史』 권13, 世家13 睿宗 6년 8월 甲午. 太史奏, 先朝所創天壽寺地勢不利, 請毀藥師院, 移之). 천수사의 중창으로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점을 짐작해보면, 이전 약사원은 상당히 규모가 작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당시 개경 시가와 교외의 순검을 담당하던 檢點軍의 파견 규모를 고려해볼 때, 약사원에 다소 적게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高麗史』 권83, 志37 兵3 檢點軍. 西郊藥師院·弓知岩·熊川·大峴·西普通亭之谷·馬川·高寺等生木立 將校各一, 散職將相各二, 軍人各六). 따라서 당시 약사원의 규모가 상당히 작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된다. ‘大赦天下’로 흔히 명명되어 임금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大赦와 赦라면, 曲赦는 일부 지역의 죄수를 대상으로 사용된 표현이었다.<sup>30)</sup> 또한 慮囚는 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죄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재심사하는 절차이며, 放은 경죄수, 決은 중죄수를 처결할 때 사용된 표현이었다.<sup>31)</sup> 따라서 곡사는 대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일반사면과 달리, 국왕의 행행 때 자주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약사원에서 사면은 곡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자의 추론은 예종대 약사원에서 거행된 또 다른 사면에 德音이라는 왕언이 쓰인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睿宗 在位 5년 11월에 “약사원 남쪽 길로 가서 德音을 반포했다”라고 했다.<sup>32)</sup> 이때 덕음의 본래 의미는 천자의 御德과 仁德을 의미하지만, 사면의 한 유형으로도 덕음이 사용되었다. 大赦가 死罪 이하를 석방하는 것에 비해 덕음으로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대개 유죄 이하를 석방했다고 한다.<sup>33)</sup> 결국, 예종 5년에 약사원에서 반포된 덕음은 규모가 작은 사면을 지칭하는 왕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덕음은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곡사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두 사례로 보건대, 약사원에서 펼쳐진 사면은 대개 곡사나 덕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필자의 추론이 옳다면, 국왕의 행행으로 온전히 외부에서만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의봉문선사서의’, ‘친사원구후사사의’ 어디에도 적용받지 않고 약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의봉문선사서의’와 ‘친사원구후사사의’가 국왕의 이동 동선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두 의례 간의 세세한 차이를 검토해보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조 틀 속에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30) 신호웅, 1992, 앞의 논문, 367~374쪽 ; 유성국, 1997, 앞의 논문, 4~11쪽 ; 한용근, 1986, 앞의 논문, 29·30쪽.

31) 김신해, 2015, 앞의 논문, 81~83쪽.

32) 『高麗史』 권13, 世家13 睿宗 5년 11월 乙丑. 十一月 乙丑朔 次藥師院南路, 頒德音, 至晡還京都.

33) 中村裕一, 1991, 『唐代制勅研究』, 汲古書院, 164~173쪽. 중국에서 德音은 唐代 처음 시작되어宋代까지 시행되었다. 특히, 『송사』 형법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무릇 德音이면 死罪와 流罪는 감형하고 나머지 죄를 석방하며, 간혹 流罪도 석방하였다.”라고 하여, 德音은 赦보다 작은 형태의 감형을 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宋史』 권201, 刑法志3. 恩宥之制, 凡大赦及天下, 釋雜犯死罪以下, 甚則常赦所不原罪, 皆除之. 凡曲赦, 惟一路或一州, 或別京, 或畿內. 凡德音, 則死及流罪降等, 餘罪釋之, 間亦釋流罪).

		儀鳳門宣赦書儀	親祀圓丘後肆赦儀	
사면 의례 구성	①準備	이틀~하루전 각 유사는 구정에 의장물을 설치 및 자리를 설치하고, 당일에 이르러 국왕이 구정으로 이어하면 문무관료는 각 자의 자리에 맞춰 정렬함.	원구단에서 제천의례 후 의봉문에 이르던 어가를 돌려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각 유사는 의장물을 설치함.	
	②赦免	讀敕書	국왕이 조서를 내려주면 합문의 인도 아래, 中書令→讀敕官→刑部尙書 순으로 건네줌. 이때 讀敕官은 讀詔臺에 올라가 사서를 낭독함.	국왕이 조서를 주면, 近臣→讀敕書官→刑部尙書 순으로 건네받음.
		脫枷	獄吏는 脫枷를 외치고 죄수는 환호함.	獄吏가 脫枷를 외침.
	③朝賀 <sup>34)</sup>	戶部尙書→禮部尙書→諸道奉表員→内外學生→客使 순으로 방물을 바침.	.	
		끝나면 국왕은 대관전으로 이어함.	끝나면 국왕은 홍례문에서 재신을 만난 뒤 대관전으로 이어함.	
④宴會		‘大觀殿宴群臣儀’에 맞춰 진행됨.		

<표 2> ‘의봉문선사서의’와 ‘친사원구후사사의’의 구성 비교

※ 출처 : 『高麗史』 권68, 志22 禮10 참조

<표 2>는 전체적인 의례를 구조화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의봉문선사서의’의 경우, 크게 ‘準備-赦免-朝賀’ 3단계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우선, 준비단계에서는 의장물 및 백관의 자리를 준비한 뒤 국왕이 구정으로 이어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면하는 단계에서는 국왕이 내려준 사서를 주고받아 이를 읽는 讀赦書 장면과 이후 죄수의 형틀을 벗기는 脫枷가 실시되었다. 사면이 끝나고 조하 단계에 이르면, 국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이를 축하·기념하는 절차를 거친 뒤 다시 대관전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친사원구후사사의’의 경우는 이와 좀 달랐다. 예지에는 국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축하하는 조하장면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準備-赦免’ 2단계 절차만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이 의례에서는 조하가 기술되지 않았던 것일까? 물론, 내용상 세세한 부분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sup>35)</sup>, 조하가 빠졌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적 경사에서 행해진 의례는 朝賀儀가 반드시 거행되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절차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친사원구후사사의’에 조하가 기술되지 않은 점을 상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4) 朝賀는 신하가 국왕을 朝見하여 敬賀의 말을 올리는 행위로, 국가 차원에서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례의식을 거행하였다. 국왕과 신하가 만나는 의식은 그 규모에 따라 국왕과 신료가 만나는 朝儀, 신료가 하례를 올리고 상표문과 예물을 올리는 朝賀, 여기에 會宴이 추가되는 大朝會로 나뉜다(김신미, 2019, 「고려전기 王太子 朝賀儀를 통해 본 왕태자의 위상」, 『동방학지』 189, 86쪽). 위의 ‘의봉문선사서의’의 경우 朝議와 朝賀로 구성되었다.

35) ‘친사원구후사사의’가 ‘의봉문선사서의’와 동일하여 일부의 내용을 생략한 것인지, 아니면 환궁하는 길이므로 간략하게 기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용이 소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① ‘의봉문선사서의’에서는 사전기간에 도교령, 중상서, 상사국, 감문위 등 다양한 기구들이 등장하지만, ‘친사원구후사사의’에서는 중상서, 감문위만 등장한다는 점. ② 국왕이 자리를 잡을 때, 전자는 국왕이 가마에서 내려 의봉루에 올라가 의례를 진행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의봉루에 올라가지 않고 수레를 남쪽으로 돌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면을 진행한다는 점. ③ 국왕이 내려준 사서를 독사관에게 전달할 때, 전자는 중서령이 전달해주는 반면, 후자에서는 근신이 이를 대신했다는 점. ④ 탈가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는 독사서 장면이 끝난 뒤 이루어졌으나, 후자에서는 형부상서에게 사서를 건네주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와 관련해 『고려사』 예지의 기재 방식이 주목된다. 대개 『고려사』 찬자의 경우, 관련 의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자세히 기술하고 뒤에 반복되는 부분은 소략하게 기술하는 특징이 있다.<sup>36)</sup> 예컨대, ‘의봉문선사서의’의 의례 준비 과정에서 “유사에서는 시위 및 의장, 노부를 진열하는데 평상시의 의례와 같다.”라고 한 대목<sup>37)</sup>에서 이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때 ‘평상시 의례[如常儀]’라고 기술한 것은 다른 의례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었다. 즉, 『고려사』 예지에서 기록의 중첩을 막기 위해 이를 생략한 것이었다. 이러한 축약의 방식은 국왕 퇴장 이후의 장면에서도 엿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어가가 대관전에 도착하여 어연에서 내려 전각에 오르면 합문의 구령으로 각 지후와 추밀 이하가 차례로 물러난다.”고 기술하고 있다.<sup>38)</sup> 그런데 단순히 국왕이 대관전으로 이어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또 다른 가례 의식인 ‘冊太后儀’를 살펴보면, 의식 안에 冊封과 宴會가 함께 베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9)</sup> 즉, 책봉의식 이후 연회라는 완결적인 구조를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보면, ‘의봉문선사서의’에서 본 사면의례가 끝나더라도 ④ 연회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그렇다면 ‘친사원구후사사의’에서 조하가 보이지 않았던 까닭도 축약의 결과로 이해해볼 수 있을까? 그러나 이 경우는 그러한 축약의 사례가 아니었다. 이는 圓丘儀禮를 검토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친사원구후사사의’는 원구의례를 진행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고려사』 예지 기록을 찾아보면 원구와 관련된 의례는 ‘圓丘(親祀儀)’, ‘親祀圓丘後齋宮受賀儀’, ‘親祀圓丘後肆赦儀’, ‘大觀殿宴群臣儀’ 등이 찾아진다. 이에 대해 豊島悠果는 원구의례가 ‘①圓丘(親祀儀)-②親祀圓丘後齋宮受賀儀-③親祀圓丘後肆赦儀-④大觀殿宴群臣儀’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40)</sup> 그것은 원구단에서 제천의례를 지내고 난 뒤, 재궁으로 이어하여 신하들에게 조하를 받고, 이어 의봉문에 들러 사면을 행하고 대관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구의례가 거행되는 절차 측면에서 보면, ‘친사원구후사사의’는 3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親祀圓丘後齋宮受賀儀’가 주목된다.

C. 제례가 끝나고 국왕이 齋宮으로 돌아올 때의 시위는 평상시 의식과 같다. 태자와 공·후·백·재신·추밀 및 제사에 참여한 문무 관리들은 모두 朝服을 갖추고 齋宮 문밖에 이르러 반열을 모아서 기다린다. 국왕이 궁전에 앉으면 금위의 큰 구령에 따라 모두 재배한다. … 閣門이 外官持表員을 나누어 인도하여, 궁전 뜰의 聞辭位로 가서 북쪽을 상석으로 하여 西向해 서게 한다. 합문이 왕에게 말을 아뢴 후에 〈外官持表員의〉 방향을 바꿔 북쪽으로 향한 자리에 가서 동쪽을 상석으로 하여 꿇어앉아 표문을 올리게 한다. 합문이 표문을 받아 국왕에게 올리고 나서 머리를 숙이고 옆드렸다가 일어나 〈外官持表員〉 문밖의 자리로 인

36) 『고려사』 예지 가례는 의례 전반을 설명하는 의례집이 아닌, 예제를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정리한 ‘志’였기 때문에, 의례가 달라져도 한 의례에서만 설명하거나 의례들을 합쳐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이정훈, 2020, 『『高麗史』禮志 嘉禮의 구성과 서술방식』, 『역사와 실학』 72, 138쪽).

37) 有司陳列衛仗鹵簿, 如常儀(『高麗史』 권68, 志22 禮10 儀鳳門宣赦書儀).

38) 『高麗史』 권68, 志22 禮10 儀鳳門宣赦書儀. 王下樓, 升平兜輦, 警蹕侍衛, 如常儀. 駕至大觀殿, 降輦升殿, 閣門贊, 各祗候樞密以下, 以次退.

39) 『高麗史』 권65, 志19 禮7 冊太后儀 宣宗 3년 2월 丙寅. 宣宗三年二月丙寅 王上冊于王太后, 御乾德殿, 受中外賀, 賜群臣宴. 自祖宗以來, 冊禮多廢, 至是復之.

40) 豊島悠果, 2017, 『高麗の宴會儀禮と宋の大宴』, 『高麗王朝の儀禮と中國』, 汲古書院, 143쪽.

도하여 나가 동쪽을 상석으로 하고 北向하도록 서게 한다. 舍人의 구령에 따라 모두가 再拜舞蹈 후 再拜하고, 만수무강을 축원한 뒤 재배한다. 이어 行頭가 앞으로 나아가 치사한 다음,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 함께 再拜舞蹈 후 再拜하고 물러난다. 閣門官이 궁전 뜰의 자리로 가서 동쪽을 상석으로 하여 北向해 서면 行頭가 스스로 구령하여 하례를 올리는데, 勅 관리들의 의식과 같다. … 만약 하례 행사가 중지되면 백관은 반열로 들어가서 서고, 함문관이 궁전에 올라가 왕의 분부를 받아 계단을 내려와 서쪽을 향해 서서 制書로써 하례를 중지하라고 말한다. 사인의 구령에 따라 각 지후와 태자 이하의 읍을 하고 차례로 물러난다.<sup>41)</sup>

C에 따르면, 국왕이 원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재궁에 도착하면 外官持表員들은 함문의 인도 아래 表文을 하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외관이 국왕에게 하례를 올리는 상황은 전형적인 조하의 모습으로써, ‘의봉문선사서의’의 조하와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위의 절차로 원구의례가 진행되었다면 조하는 재궁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親祀圓丘後肆赦儀’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친사원구후사사의’에서 조하가 기술되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유지하의’가 고려전기와 달라진 후기의 의례를 알려주기 위해 기술한 것이라면, 전기의 의례인 ‘의봉문선사서의’와 ‘친사원구후사사의’는 국왕의 동선과 의례 구성내용 상의 차이로 인해 별도로 수록되었던 것이다. ‘의봉문선사서의’는 국왕의 동선이 켄 내부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적용한 사면의례라면, ‘친사원구후사사의’는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한 경우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이동 동선의 차이는 사전행사의 유무와 관련이 깊다. 전자는 그 자체가 본 의식이었고, 후자는 본 의식에 뒤에 부가의례로서 거행되던 사면의례였다. 그로 인해 전자는 준비-사면-조하-연회라는 완결적 구조로 의례가 진행되었고, 후자는 사전행사에서 이미 거행된 조하를 뺀 형태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 3. 宣赦書儀의 절차와 의미

앞 장에서 『고려사』 예지에 3개의 사면의례가 수록된 배경과 그 전체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면의례의 구체적인 절차와 여기에서 보이는 상징과 의미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의봉문선사서의’를 정리한 표이다.

41) 『高麗史』 권67, 志21 禮9 親祀圓丘後齋宮受賀儀. 祭畢, 王既還齋殿, 侍衛如常儀. 太子·公侯伯·宰臣·樞密, 及文武從祀群官, 並朝服, 詣齋宮門外, 合班以俟. 王坐殿, 禁衛大喝, 再拜. … 閣門分引外官持表員, 入就殿庭聞辭位, 西向北上, 立定. 閣門奏聞辭訖, 折方, 就北向位, 東上, 跪奉表. 閣門接表, 以進訖, 俛伏興, 引出門外位, 北向東上立. 舍人喝, 皆再拜舞蹈, 又再拜, 奏聖躬萬福, 再拜. 行頭進步致辭, 退復位, 皆再拜舞蹈, 又再拜訖, 退. 閣門官就殿庭位, 北向東上立, 行頭自喝陳賀, 如群官之儀. … 如放賀, 則百官就班立定, 閣門官上殿承旨, 降階西向立, 稱制曰, 放賀. 舍人贊, 各祇候, 太子以下揖訖, 以次退.

42) ‘拜’는 두 손을 모아서 땅을 짚고서 이마를 땅에 대는 예도를 말한다(강제훈, 2017, 『조선 전기의 국가의례와 의주』, 민속원, 47쪽). 그리고 ‘無道’는 황제에 대한 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황제의 은혜에 대해 손과 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再拜舞蹈’는 황

날짜	절차			내용	장소
전날	① 準備	陳 設		각 有司가 구정에 의장물을 설치하고 시위 및 의장, 노부를 모두 진열시키면, 재신·추밀 이하 시신과 문무백관들은 각 자리에서 習儀함.	의봉문
			初 嚴	初嚴이 올리면 합문은 각 위치에 맞게 間辭位와 拜位를 설치함.	
		移 御	中 嚴	中嚴이 올리면 추밀 이하 좌우 시신·합문의 반열은 모두 전정에 들어가 좌우로 분열하여 기다림. 국왕이 赭黃袍를 입고 輦轎輦을 타기를 마치면, 의장대 및 추밀, 시신의 인도 아래 전문을 나감.	대관전
			三 嚴	三嚴이 올리면 어가가 의봉문에 도착하고 국왕이 내림.	대관전→ 의봉문
당일	② 赦免	拜 謁		국왕이 누각에 올라 御幄에서 나와 자리에 앉으면, 백관들은 拜謁하고 이후 班首가 聖躬萬福을 아뢴 뒤 致辭하고 再拜舞蹈 <sup>42)</sup> 후 再拜함.	의봉문
				형부상서는 군관 동쪽에 西向해 서고, 형부시랑은 죄수들을 영솔하여 군관 뒤쪽 北向하도록 정렬함.	
		讀 赦 書		조서가 누대에서 내려오면 持節官·持函官은 앞에 나가고, 합문은 중서령을 인도하여 조서가 도착하는 곳에 이름.	
				합문은 조서를 취하여 중서령에게 주면, 중서령은 俯伏興 후 무릎을 꿇고 조서를 받아 함에 넣어 둠.	
				지절관·지함자가 앞서 나가면, 합문은 중서령을 인도하여 제책이 있음을 알림.	
				봉례가 재배를 외치면 왕태자와 백관들은 모두 재배함.	
				중서령이 조서를 讀赦官에게 전하면, 독사관은 俯伏興 뒤 무릎을 꿇고 조서를 받아 함에 넣음.	
				지절관·지함관 순으로 讀詔臺로 이동하며, 독사관은 독조대 아래에 이르러 재배함.	
				持節官·持函官·讀赦官·披詔官(2인) 순으로 독조대에 오르며, 지절관이 부절의 외피를 벗긴 후 피조관이 탁자 동·서편에 마주 서서 조서를 펼침.	
				독사관이 읽기를 마치면 지절관은 부절의 외피를 다시 씌움.	
				協律郎의 깃발 신호에 따라 監門衛는 북을 두드리고 軍民들은 환호함.	
				독사관 이하의 관원들이 무대에서 내려가면 봉례가 재배를 외침.	
				독사관은 재배하고 사서를 받들어 형부상서에게 건네주면, 형부상서는 이를 함에 넣고 물러남.	
				봉례가 재배라 이르면, 왕태자 이하 여러 관료들은 재배함.	
				班首가 致辭를 올리면, 왕태자 이하 관료들은 再拜舞蹈 후 再拜함.	
	③ 朝賀	賀 禮	脫 柯	합문이 각각 왕태자와 공·후·백, 재신 및 문무 군관을 인도하여 구정에서 卷班하면, 獄吏는 반열의 남쪽에 이르러 몸을 굽히고 “脫柯”하겠다 말함.	
				죄수는 환호하고 재배한 다음 서쪽 문으로 나감.	
				합문의 인도 아래 戶部尙書 → 禮部尙書 → 諸道奉表員 → 內外學生 → 客使 순으로 表文과 貢物을 바치고, 이때 進奉物은 모두 동쪽 인덕문 밖에 진열시킴.	

제의 은혜에 더할 나위 없는 환희를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황제에게 信從하는 것을 표현한 신체의례 행위였다(김아네스, 2019, 앞의 책, 374·375쪽).



		移御	국왕은 의봉루에서 내려와 平兜輦에 오름.	의봉문→ 대관전
			어가가 대관전에 도착하여 御筵에서 내려 전각에 오르면, 합문의 구령에 따라 각 지후와 추밀 이하들은 차례대로 물러남.	대관전

<표 3> 儀鳳門宣敕書儀 절차 정리

※ 출처 : 『高麗史』 권68, 志22 禮10 참조

‘의봉문선사서의’에서 宴會를 제외한 본 절차는 ①準備-②敕免-③朝賀 3단계로 구분되었다. 우선 ① 단계에서는 주로 陳設 및 국왕의 移御가 주로 전개되었다. 즉, 이틀-하루 전에는 禮部의 관리 감독 아래, 각 유사가 구정에서 의장물을 진설하고 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미리 연습했다. 이때 본 의례는 예부가 전체적으로 관장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敕旨都監을 두어 의례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sup>43)</sup> 다만, 어떤 경우에 사지도감을 설치했고, 또 그 휘하 관직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기록의 한계로 정확히 추론하기 어렵다.

당일에 이르면, 이른 새벽 예부에서 初嚴<sup>44)</sup>을 알리는데 이에 따라 합문은 구정에 왕태자, 공·후·백, 재신·추밀이하 문무백관, 行禮執事官들의 聞辭位와 拜位를 설치한다.<sup>45)</sup> 그리고 노부와 의장·호위는 구정<sup>46)</sup>에서 대관전 뜰에 이르기까지 좌우로 진열해 서있다. 이후 中嚴이 울리면, 추밀 이하 좌우 시신의 반열은 모두 대관전 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국왕이 赭黃袍<sup>47)</sup>를 갖추어 입고 輜輳輦<sup>48)</sup>을 통해 구정에 移御하면 함께 이동한다.<sup>49)</sup> 어가가 의봉문에

43) 사지도감(敕旨都監)이 등장한 기록은 『高麗史』 권72, 志26 輿服1에 기록된 ‘宣敕儀仗’이 유일하다. 이때의 기사는 고종 8년(1221) 10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敕旨都監直將校二人”라는 대목에서 그 기사를 찾을 수 있다.

44) 국왕이 참석하는 의식은 ‘嚴’이라는 시간 구분이 적용되었다. 嚴은 ‘初嚴(一嚴)-中嚴(二嚴)-三嚴’으로 단계가 구분되는데, 각각 복을 쳐서 시간을 알렸다. 이때의 嚴은 행사를 준비하는 기준이며, 국왕이 궁궐 밖으로 나오는 기준점이 된다. 우선 초엄이 들리면 의례행사 참여자들은 의례를 준비하고, 국왕이 출발할 때 중엄이 울린다. 그리고 국왕이 의례장소에 입장하면 삼엄이 울린다(강재훈, 2017, 앞의 책, 31~32쪽). 삼엄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이민기, 2016, 앞의 논문 ; 2017, 앞의 논문).

45) 聞辭位는 말씀을 아뢰어 올리는 자리, 拜位는 절을 하는 자리를 의미한다. 문사위와 배위의 자리는 부복의 그림을 참조하길 바란다. 위치별로 이들의 자리를 검토해보면, (가) 의례를 주관하는 행례집사관들의 자리와 (나) 왕태자 및 2품 이상의 고위관료들이 위치하는 자리, 그리고 (다) 3품 이하의 문무백관들이 위치한 자리 등 크게 3층으로 구분되었다.

46) 毬庭은 회경전과 승평문 사이에 위치한 궁궐의 큰 뜰을 말한다. 구정에서는 격구와 같은 놀이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주로 대조회 및 대초례, 인왕백고좌회, 장경도량, 팔관회·연등회, 사면, 노인사설의 등 국가적 의례가 설행되었다(이현정, 2011, 앞의 논문). 한편,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간으로 신라의 ‘南堂’과 중국의 ‘朝堂’이 참조된다. 남당은 처음 첨해이사금 3년(249) 궁 남쪽에 설치되어, 동왕 5년(251)에 정사를 보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눌지마립간 7년(423)에 들어서면서 양로연과 같은 의례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즉, 신라의 남당은 연회·국사논의·정무 집행 등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중국 조당의 경우, 전한기 무렵 정전과 함께 백관의 조의를 결정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다가, 후한기로 접어들면서 의례 집행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즉, 중국에서의 조당 역시 정치적 공간과 의례적 공간이 결합된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었다(한영화, 2014, 「신라 사면의 의례와 공간」, 『역사와 현실』 94, 85~92쪽 ; 와타나베 신이치로, 2002, 『천공의 옥좌』, 신서원, 49~53쪽).

47) 赭黃袍는 의종대 상정된 것으로 주로 예식과 관련된 7가지 상황(『高麗史』 권72, 志28 輿服1 官服 視朝之服. 正·至·節日朝賀, 大觀殿大宴, 儀鳳門宣敕, 奉恩寺謁祖眞, 八關會·燃燈大會·祈穀圓丘 出宮, 王太子納妃醮戒, 冊王妃·王太子 臨軒發冊)에서 착용하였다. 그런데, ① 『高麗史』 권72, 志28 輿服1 官服 視朝之服 文宗 12년 4월의 기사를 살펴보면, 今按律曆志, ‘黃者, 中之色, 君之服也.’ 唐史云, ‘天子服用赤黃,’ 遂禁士庶, 不得以三黃爲服 … 然則帝王之服, 備禮則黃赭絳三色, 如宴饗小會, 取其便宜,

도착할 때쯤 三嚴을 올리면, 국왕은 누각에 오르고 백관들은 각자 위치에 맞춰 반열을 정렬한다.

② 단계는 사면의례가 본격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백관들이 국왕에게 拜謁하고 형부시랑이 죄수를 집합시키면, 국왕이 내려준 사서를 읽고 형틀을 벗기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국왕의 조서가 아래로 내려오면 대기해있던 함문이 이를 취해 중서령에게 건네 주고, 또 중서령은 독서관에게 준다. 이후 지절관-지합관-독서관-피조관 순으로 독조대에 오 르는데, 지절관이 부절<sup>50)</sup>의 외피를 벗기고 조서를 꺼내면, 피조관 2인이 탁자 좌·우에서 펼쳐 들고 서 있으며, 독서관이 이를 낭독한다. 마치면, 지절관은 다시 부절의 외피를 씌운 뒤, 감문위의 북소리에 따라 軍民은 환호하기를 세 번 반복한다. 독서관 이하의 관원들이 모두 독조대에서 내려오면, 독서관은 조서를 형부상서에게 건네준다. 이후 옥리(형부시랑 포함)가 형틀을 벗기겠다[脫枷]<sup>51)</sup> 하면, 죄수는 환호하고 재배한 뒤 서쪽 의창문으로 나갔다.

③ 사면이 모두 끝나면, 각 지방에서 공물을 바치고 이를 축하하는 조화와 궁으로 돌아가

今所服紅黃外, 更無餘色.”라 하여 고려가 천자의 색인 黃色을 쓰고 있다. 또한, ②『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30년 2월 丙申 기사에서 “丙申 燃燈, 王如奉恩寺, 是日, 以塔察兒·王約言, 朝廷未有明禁, 復用黃袍黃傘.”라 하여, 황포와 황산의 사용이 원 조정의 조치로 구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의례식에서 자황포 착용은 ‘天子儀制’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한정수, 2018,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 55, 347쪽).

48) 輶輶輦과 平兜輦은 왕이 移御할 때 타는 가마로, 의종 때 상정되었다. 초요련은 국왕이 출발할 때 타는 가마로, 그 모습은 종려나무로 만들어진 지붕과 주철·금도금·구리로 된 용과 봉황으로 장식된 가마였다. 반면, 평두련은 국왕이 돌아올 때 타는 가마로, 그 모습은 초요련과 비슷하나 지붕이 없다(『高麗史』 권72, 志26 輿服1 輿輅. 毅宗朝 詳定, “象輅, 朱漆·金塗·銀裝, 以象飾諸末. 駕赭白馬, 六祀郊廟, 乘之. 輶輶輦, 以椶櫚爲屋朱漆, 金塗·銅龍鳳裝. 金銀線織, 成黃盤龍鬬褥一, 案一, 長竿一, 並朱漆. 案鋪, 以紅繡, 長竿, 飾以銀龍頭, 上元燃燈·八關會·御樓大赦, 乘之. 其還闕, 乘平輦, 其制, 如輶輶而無屋).

49) 이때 대관전→구정까지의 국왕의 이동경로 과정은 다음의 논문이 주목된다(김보광, 2020, 앞의 논문 ; 2021, 앞의 논문).

50) 符節은 神의 권위를 표상한 주술적 성격의 瑞玉이었으나, 관료제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이를 넘어서 정치적인 지배자의 명령 권한이 새겨지게 되었다. 특히, 秦·漢代에 이르러서부터는 주변 국가와의 盟約·和約을 드러내는 증표가 되었으며, 외교권과 군대 통수권을 포함하는 皇帝의 信物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符節은 약속의 증표이자 권위의 상징물이며, 나아가 임금과 신하들 사이의 주종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짓게 만드는 물건이었다(송진, 2016, 「秦漢時代 통행 허가와 君命의 상징」, 『중국고중세사연구』 42, 150~178쪽). 이를 고려해볼 때, 고려 사면의례에서 符節을 벗기는 연출적 장면은 임금의 권위를 사방에 펼쳐 國王과 臣民 사이의 주종관계를 ‘階序의’ 형태로 구분 짓게 해주었던 물건으로 보인다.

51) 한편, 脫枷와 관련하여 송나라의 기록이 주목된다. 『夢華錄』 권5, 下 明禮祀成登門放赦에 따르면, 荷花枷가 씌워진 죄수들은 옥졸이 簪花하고 성지를 받든 뒤 석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大理寺帥 漕兩司等處, 以見禁杖罪之囚, 衣褐衣, 荷花枷, 以獄卒簪花跪伏門下, 傳旨釋放). 여기서 荷花枷는 연꽃문양이 조각된 칼을 의미하는데, 본디 荷花는 연꽃을 뜻하는 용어로 불교에서 곧 정화(淨化)를 상징한다. 따라서 연꽃이 그려진 칼을 죄수에게 차게 한 것은 죄를 씻기고자 하는 일종의 상징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또한, 머리에 꽃을 꽂는 행위인 簪花는 송나라 때 크게 유행한 문화로서, 당대인들은 황제로부터 賜花 받은 꽃을 머리에 꽂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 그것은 꽃이 가지는 길조의 특성과 자신의 조상을 빛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점차 의례적인 행위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따라서, 형을 집행하는 옥졸들 역시 황제의 ‘天恩’과 ‘天意’를 보여주기 위해 꽃을 꽂았던 것이다(譚艷玲, 2013, 「宋詩中的男子簪花現象研究」,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 馮尔才 외, 2011, 「宋代男子簪花習俗及其社會內涵探析」, 『民俗研究』, 55쪽). 물론, 기록의 부재로 중국의 사면의례가 고려 측에 그대로 적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관전연군신의’에서 ‘戴花’가 이루어진 흔적을 고려해볼 때, ‘의봉문선사서의’ 이후 ‘대관전연군신의’가 진행된 사면의례 또한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高麗史』 권68, 志22 禮10 大觀殿宴群臣儀 大宴. 至三味, 王入便次戴花, 太子·公侯伯·宰臣·樞密, 各就幕次, 戴花訖, 兩班三品以下, 常參以上, 殿門外戴花).

는 이어 장면이 진행되었다. 합문의 인도 아래 호부상서 → 예부상서 → 제도봉표원 → 내외학생 → 객사 순으로 表文과 貢物을 바치고, 임금께 致賀하는 말을 올렸다. 이후 국왕이 평두련을 타고 대관전으로 돌아가 전각에 오르면, 합문의 구령에 따라 각 지후와 추밀 이하는 차례대로 물러나며 본 의례가 마무리되었다.

위 사면의례는 사전에 의례를 준비하고 본 의식을 거행한 뒤 조하의를 행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여타의 의례와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의례에서 사용되는 의장 기물은 물론, 세세하게 의례 절차를 검토해보면, 사면의례만의 특수성이 엿보인다. 여기서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위 사면의례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의장물이 주목된다.

D. 이틀 전에 都校署는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儀鳳門 동남쪽에 金雞竿을 세우고, 讀詔臺는 계간의 서쪽, 儀鳳樓의 남쪽에 설치한다. 中尙署에서는 독조대 위 북향으로 탁자를 놓는다. 예식 하루 전 尙舍局에서는 의봉루의 위에 幄次를 친다. 尙書禮部에서는 監門衛로 하여금 毬庭에 大鼓를 설치하게 하는데 동서로 각각 15개를 양반의 행렬 밖에 놓는다.<sup>52)</sup>

<표 3>에서 주지하다시피, D는 ‘의봉문선사서의’의 의장물 진설에 관한 부분이다. 위 내용에 따르면, 각 有司<sup>53)</sup>는 미리 구경에서 金雞竿, 讀詔臺, 案, 幄, 大鼓, 板位 등 여러 의장기물들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 金雞竿과 大鼓가 특별히 주목된다. 『고려사』 예지에 수록된 각 의례 중에서 금계간과 대고가 설치된 것은 사면의례가 유일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곧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모두 왕권의 위엄성과 관련이 있다. 금계간은 닭의 형상이 그려진 금장대로, 국왕이 사면을 선포하는 장소인 의봉문 동남쪽에 배치되어 있다. 고려뿐만 아니라 사면의례를 시행하는 여러 왕조에서는 금계간을 의장기물로서 활용해왔다.<sup>54)</sup> 그렇다면 사면의례에서 왜 금으로 만들어진 닭 장대가 등장하는 것일까? 다음 사료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자.

E-1. “齊나라 長廣王 湛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 南宮에서 사면령을 내리고 원년을 고쳤다. 그날 사면령을 반포하기 전에 문밖에 金鷄를 세워 놓았는데, 宋孝王이 그 뜻을 몰라 光祿大夫 司馬鷹之에게 물어보았다. 사마응지가 대답하기를 ‘海中星占을 살펴보니, 天鷄星이 움직이면 반드시 사면을 행한다 하였으니 이런 까닭에 제왕이 닭을 상징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였다.”<sup>55)</sup>

52) 『高麗史』 권68, 志22 禮10 儀鳳門宣敕書儀.

53) 이때 등장하는 有司는 都校署, 中尙署, 尙舍局, 監門衛이다. 都校署는 주로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만드는 기관 즉, 工作을 담당하던 관서이다. 中尙署 역시 御用의 器玩 즉, 국왕을 비롯하여 왕실에서 쓰는 기물과 완호물을 관장하는 관서였다. 그리고 尙舍局은 국왕이 머물 막사나 좌석 등을 설치하는 업무 즉, 鋪設을 담당하는 관서이다. 따라서, 도교서와 중상서, 상사국은 모두 왕실 의례에 쓰일 의장물들과 자리를 준비[陳設]하는 기관이었던 것이다. 한편, 監門衛는 도성 여러 문을 守衛하던 관서로, 여기에 군인 1령(1,000명)이 배치되어 근무하였다(박용운, 2009, 『고려사 백관지 역주』, 신서원, 378~380·384~386·393~395·652~654쪽).

54) 사면 과정에서 금계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중국 위진남북조부터이며, 이후의 기록에서도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隋書의 기록이 주목된다(『隋書』 권25, 志20 刑法 齊律. 敕日, 則武庫令設金雞及鼓於閭闔門外之右. 勒集囚徒於闕前, 搥鼓千聲, 釋枷鎖焉).

55) 『太平御覽』 권98, 三國典略. 한편, 위 기록은 『關東風俗傳』, 『封氏聞見記』, 『大興記』, 『唐六典』, 『宋史』 등 여러 문헌에서 찾아진다.

E-2. 그 취지를 따지면, 무릇 西方인 兌(金)는 澤을 상징하고, 닭은 巽의 神이며 巽은 號令을 상징한다. 그런 까닭에 두 가지를 결합해 장대를 높이 들어 사람들에게 보게 하였던 것이다.<sup>56)</sup>

E-3. 萬人이 다투어 금계간 아래의 흙을 조금씩 취하는데, 이를 ‘佩之日利’라 이르렀다. 수일이 지나 마침내 웅덩이가 만들어졌으니, 所司 또한 이를 금지시킬 수 없었다.<sup>57)</sup>

E-4. 한밤중이 되면 陽氣가 움직이는 까닭에 닭이 반드시 날개를 치고 울면서 소식을 전하게 된다. 나라에서 일(慶事)이 있으면 罪囚를 석방시키므로, 天鷄星이 움직이면 반드시 赦令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 이치가 바로 그런 까닭에 북쪽 殿門 밖에다가 金鷄를 상징으로 세웠다. 소위 ‘金鷄放赦’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sup>58)</sup>

E-1은 983년, 이방(李昉, 925-996)이 편찬한 『太平御覽』의 내용으로, 중국 宋代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위 내용에 따르면, 당시 금계는 天鷄星의 형상이라고 여겨졌으며, 천계성이 움직이면 임금의 사면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천계성은 혜성(尾宿) 9개의 별자리 중 狗國星 북쪽에 위치한 별로서, 흔히 천계가 사는 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천계성의 움직임은 과거 중국인들로부터 불길한 징조로 인식되어왔다. 천계성은 계절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면 곧 농업에 지장을 주었으며,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후비가 임금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징조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sup>59)</sup> 그런 까닭에 천계성이 움직이면 사면이 함께 동반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닭의 형상을 한 천계성의 움직임이 사면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 이 지점에서 닭이 가지는 여러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닭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열어주는 벽사의 동물이라는 점에서 사면에 적합한 존재였다. 예로부터 닭은 비바람이 불고 어두워도 그 직책을 잃지 않아 ‘常世之鳥’라 불리었다. 또한, 닭 울음을 통해 창궐하던 귀신을 없애고 태양을 물고 온다는 점에서 祥瑞와 陽氣의 동물로 일컬음 되었다.<sup>60)</sup> 무엇보다 刑殺은 사람을 죽이고 처벌하는 陰氣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sup>61)</sup>, 천계가 陽氣를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상충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천계는 사면이 실시되는 양기의 계절과도 부합되었다.<sup>62)</sup> 따라서, 사면의례에서는 祥瑞, 陽을 상징하는 천계를 이용해 陰을 막고자

56) 『楊文公談苑』 권4, 指出金雞. 究其旨, 蓋西方主兌, 爲澤, 雞者巽之神, 巽爲號令, 故合二物制其形, 揭長竿使衆人睹之.

57) 『封氏聞見記』 권4, 金雞. 萬人競就金雞柱下取少土, 云, ‘佩之日利’. 越數日間, 遂成坑, 所司亦不能禁.

58) 『星湖僊說』 권6, 萬物門 金雞放赦. 夜半, 陽氣動, 雞必鼓翼而唱, 以報喜也. 國之有赦, 囚徒蒙放, 故天鷄星動, 則必有赦, 其理即然也. 故北方殿門外, 建金雞以象之, 所謂 ‘金雞放赦’, 是也.

59) 혹자는 천계성을 金星 혹은 匏瓜星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로 계절(時候)을 주관한다고 알려져 있다(于廣哲, 2010, 「中古放赦文化的象征-金雞考略」, 『陝西師範大學學報』 39, 106쪽).

60) 葛承雍, 1993, 「唐代金雞風俗談」, 『歷史月刊』 70, 100쪽.

61) 陳俊強, 2007, 『皇權的另一面-北朝隋唐恩赦制度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13쪽.

62) 『高麗圖經』에 따르면 가벼운 사면은 해마다 여름 8월에 시행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高麗圖經』 권16, 官府 圜圖). 여름 8월은 春夏에 해당되는 陽氣의 계절로, 일찍이 이성구는 이와 관련해 時令을 주목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陰陽의 원리 이면에 “剛과 柔라는 이원적 목민원리가 관철됨으로써 효율적인 인민통제와 생산력의 극대화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春夏에 행형을 금지하고 포상과 구휼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생산력을 극대화하려는 조치였으며, 반대로 秋冬에서는 엄격한 형벌실시를 통해 인민의 나태 및 절도 행위를 차단하고 국가권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이성구, 1997, 『중국고대의 주술적 사유와 제왕통치』, 일조각, 259-262쪽). 따라서, 사면이 양기의 계절 즉, 春夏에 주로 실시된 것은 국왕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했던 것이었다.

물론, 이때의 천계는 단순히 상서와 양기만을 상징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를 증명하는 사료가 바로 E-2이다. E-2는 양억(楊億, 974-1020)이 저술한 『楊文公談苑』의 일부 내용으로, 금계를 세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西方인 兌[金]<sup>63)</sup>는 澤을 상징하고 鷄는 巽神으로써 號令을 상징한다. 즉, 은혜를 상징하는 금과 호령을 의미하는 닭이 합쳐진 것이 바로 금계간이었다. 여기서 은혜와 호령이 임금을 상징하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그런 까닭에 “두 가지를 결합해 장대를 높이 들어 사람들에게 보게”함으로써, 사면에서 임금이 베푸는 은혜와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sup>64)</sup>

사면의 의물으로써 사용되었던 만큼 금계간은 때때로 백성들에게 신성한 대상으로 여겨지곤 했다.<sup>65)</sup>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E-3이다. E-3는 唐代 封演이 저술한 『封氏聞見記』로, 위 내용에 따르면 당대의 백성들이 계간 아래의 흙을 다투어 가져가는 바람에 웅덩이가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후술하겠지만, 중국의 사면의례에서는 금계간을 쟁탈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함으로써 임금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3에서 백성들이 흙을 쟁탈한 것도 그것과 유사한 모습이라 여겨진다. 이는 아마도 금계간이 국왕의 권위와 은혜를 상징하는 의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계간이 꽂혀 있던 흙마저도 상서와 길조의 대상으로 여겨 쟁탈했던 것으로 이해된다.<sup>66)</sup>

이러한 금계의 의미와 상징은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수용되었던 것 같다. 고려의 사면의례에서 금계를 의물로서 설치했던 사실이 그것을 대변하거나, 조선 역시 그러했음을 다음 사료 E-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 사료는 이익이 저술한 『星湖僊說』의 金鷄放赦에 관한 내용으로, 앞서 살펴본 닭이 가진 벽사의 의미와 음양오행에 따른 이치를 설명함으로써, 금계의 기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까지 사면에서 금계가 갖는 의미와 상징이 사회적으로 지속해서 수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중국에서 상서와 양기의 속성을 지닌 금계는 사면과 관련한 천계성을 형성화한 것이자, 임금의 은혜와 호령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왕권의 행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금계는 그 자체로서 사면을 상징하고, 나아가 사면을 행사하는 왕권을 표상하는 의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 까닭에 사면의례에서는 중국은 물론 고려에서도 반드시 금계간을 설치했던 것이다.

다음의 의물로는 구정에 설치된 大鼓가 주목된다. 본 의례에서 대고는 군신들이 쪽 늘어선 반열의 바깥 좌우에 15개씩 설치되었다. 북은 흔히 국가의 威儀를 상징하는 神物로서 의례에 위엄성과 신성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sup>67)</sup> 그런 까닭에 고려의 각종 의례에서는

63) 兌卦는 방위가 西方으로 金을 五行으로 삼고 있는, 반면 巽卦는 東南方의 방위로 木을 五行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음양오행학으로 서로 보완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葛承雍, 1993, 앞의 논문, 99쪽; 于廣哲, 2010, 앞의 논문, 105쪽).

64) 田明輝, 2019, 「唐代赦免制度研究」, 西北政法大學 碩士學位論文, 25·26쪽.

65) 이와 유사한 사례로 중국의 土牛儀禮를 주목할 수 있다. 특히, 打春牛을 진행할 때 부서진 흙덩이를 주워와서 처마에 뿌리면 지네가 생기지 않거나 혹은 풍년을 기원할 수 있다는 관습이 새로 생겨났다. 이것은 잠재되어 있던 의례에 신앙적 요소가 결합되어 새로운 문화적 심상과 행위가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상범, 2009, 「土牛儀禮의 法制化過程과 儀禮變化에 나타나는 時代的 含意-天聖令과 唐令의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12, 146·147쪽).

66) 于廣哲, 2010, 앞의 논문, 107쪽.

67) 김양동, 2004, 「북소리, 그 神命의 세계」, 『한국학논집』 31, 5·6쪽.

북이 주요한 의물로 설치되곤 했다. 그런데, 사면의례에서는 일반 鼓가 아닌, 大鼓가 설치되었다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고는 예종 대에 송 황제에게 하사받은 신악기로서<sup>68)</sup>, 대고가 의물로써 활용된 사례는 사면의례 이외에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사면의례에서 대고 소리는 사면의 완결을 상징하는 최고의 의물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려 사면의례에서 대고가 어디에 정확히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국 사면의례에서 의물로서 쓰인 흔적을 고려해볼 때 이를 참고해볼 만하다. 다음 사료를 살펴보도록 하자.

F-1. 사면 당일, 무고령은 금계 및 북을 창합문 바깥 오른쪽에 설치하였다. 죄수들을 궤 앞으로 집합시키고, 북을 천 번 쳐 도리깨[枷]를 풀어주었다.<sup>69)</sup>

F-2. 형부시랑이 그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먼저 금계를 서조당의 동쪽에 설치하되 남향하게 한다. 북과 장은 금계의 남쪽에 둔다. 드디어 북을 울리면 한번 북이 울릴 때마다 杖 하나를 던진다. 형부시랑이 경사의 현재 수인을 기록하여 여러 관인들의 남쪽에 모이게 하는데 북면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수인이 다 모이면 북을 멈춘다.<sup>70)</sup>

F-3. 協律郎이 꿇어앉아 머리를 숙이고 부복했다가 麾를 들고 일어나면 監門衛가 북을 두드리고 軍民은 환호한다. 협률랑이 휘를 내리면 그치고 다시 휘를 들면 북을 울리고 환호하기를 세 번 반복하고 멈춘다. … 獄吏는 班列의 남쪽에 이르러 북쪽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형틀을 벗기겠다고(脫枷) 말한다. 죄수는 환호하고 재배한 다음 서쪽으로 나간다.<sup>71)</sup>

F-1은 『隋書』 刑法志에 실린 사면의 내용으로, 수대의 脫枷 장면을 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사면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북을 천 번이나 치고 나서야 죄수들의 도리깨[枷]를 풀어주었다는 점이다. 사면 과정에서 북을 백 번도 아닌 천 번이나 두드렸다는 사실은 특정한 목적을 지닌 중요한 의례였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황제는 만민이 보는 앞에서 북을 천 번 치게 함으로써 북소리에 맞춰 죄수들의 죄악을 하나씩 씻는 모습을 연출하여 자신의 사면권이 행사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북소리가 형벌의 면제를 형상화했다는 점은 F-2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보인다. F-2는 『大唐開元禮』 宣敕書의 일부 내용으로, 唐代의 사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사료이다. 위 내용은 사서를 읽기 전, 죄수를 집합시키는 과정에서 실시된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죄수들을 집합시킬 때 북을 한번 칠 때마다 杖을 하나씩 던진다는 점

68) 『高麗史』 권70, 志24 樂1 雅樂 宋新賜樂器. 睿宗九年六月甲辰朔 安稷崇還自宋. 徽宗詔曰, “樂與天地同流, 百年而後興, 功成而後作. 自先王之澤竭, 禮廢樂壞, 由周迄今, 莫之能述. 朕嗣承累聖基緒, 永惟盛德休烈, 繼志述事, 告厥成功. 乃詔有司, 以身爲度, 由度鑄鼎作樂, 薦之天地宗廟, 羽物時應. 夫今之樂, 猶古之樂, 朕所不廢, 以雅正之聲, 播之今樂, 肇布天下, 以和民志. 卿保有外服, 慕義來同, 有使至止, 願聞新聲. 嘉乃誠心, 是有用錫, 今因信使安稷崇回, 俯賜卿新樂.” … 壺四十枚, 三匣盛, 大鼓一面, 桐油遍地花并座, 鼓槌, 紫絹衣全.

69) 『隋書』 권25, 志20 刑法 齊律. 敕曰, 則武庫令設金雞及鼓於閭闔門外之右. 勒集囚徒於闕前, 撾鼓千聲, 釋枷鎖焉.

70) 『大唐開元禮』 권129, 宣敕書. 刑部侍郎率其屬先陳金雞於西朝堂之東南向, 置鼓板於金雞之南, 遂擊每一鼓投一杖. 刑部侍郎錄京師見囚集於羣官之南北面西上囚集訖鼓止.

71) 『高麗史』 권68, 志22 禮10 儀鳳門宣敕書儀. 協律郎跪俛伏, 舉麾興, 監門衛振鼓, 軍民懽呼. 協律郎偃麾止, 又舉麾, 振鼓懽呼, 三而止 … 卷班出, 獄吏詣班南, 北向躬身, 稱脫枷. 囚徒懽呼, 再拜西出.

이다. 刑具인 장을 던지는 모습은 형벌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모습을 형상화 시켰다고 이해해볼 수 있다. 즉, 북을 칠 때마다 장을 던지는 행위는 죄를 씻어내는 일종의 연출적 퍼포먼스였던 것이다. 실제, 打鼓 행위는 宋 眞宗 원년(1010) 제도 정비로 폐지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연출 되었다고 한다.<sup>72)</sup>

이상에서 중국에서 타고 행위의 의미와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죄수들의 죄를 씻는 천 번의 북소리는 백성들에게는 사면권을 행사하는 황제의 은덕이 베풀어지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는 어땠을까? F-3는 ‘의봉문선사서의’의 讀赦書에서 脫枷가 진행되는 전까지의 장면으로, 감문위가 북을 치면 군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런데 위의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중국에서 대고를 여러 번 두드리는 장면이 고려에서도 연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사면의 의물로써 중국의 계간을 고려가 그대로 수용했던 사실과 구정에 대고를 15개나 설치했던 점에서 추론된다. 고려에서 타고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임금의 사면권을 돋보이도록 하는 타고 행위를 고려가 하지 않았을 까닭은 없다. 아마도 고려 역시 대고를 여러 번 울려 죄수들의 죄악을 씻겨내고 용서해주는 일종의 연출적 효과를 기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금계간과 대고는 사면의례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의장물로, 국왕이 독점하는 사면권의 발현을 보여주는 대표적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사면의례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정에서 금계간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국왕이 곧 사면을 시행한다는 알림의 징표이자, 사면의례가 거행될 신성한 장소임을 표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금계간은 은택을 베풀고 임금의 권위를 형상화한 의물이라는 점에서 국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장치였다. 대고의 북소리는 사면을 선포하는 ‘울림’의 표상이었으며, 죄수들의 죄를 씻겨 내보내는 연출적 장치였던 것이다.

둘째로, 고려의 사면의례에서는 어떤 의례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사면의례는 내외의 관료는 물론 백성들까지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파견된 객사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규모면으로 고려 최고의례인 팔관회와 견줄만하다. 그런데 참여한 관료들의 세세한 대상을 검토해보면, 고려왕조에서 사면의례가 차지하는 위상을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존재들이 사면의례에 참석했던 것일까?

사면의례에서는 다양한 現職官僚들이 참여했다. 그런데 『고려사』 예지 기록에 나열된 참석인원을 고려해보면, 현직관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前職官僚들도 확인된다.

G. 禮司奏三嚴，駕至儀鳳門，降輦，鳴鞭。上樓，承制近臣及千牛上·大將軍，紅黃小傘各一，靜鞭承旨等從升，樞密以下，左右侍臣，出毬庭，各就位立定。輶輶輦·平兜輦·繖扇·旌節，前後導從，鼓吹儀衛，出毬庭環列。文武群官，及致仕，以理解官，應在庭者，各就本班。<sup>73)</sup>

G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왕이 의봉문에 도착하면 백관들이 각자 위치에 맞춰 정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기사이다. 그런데 여기서 밑줄 그은 문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무군관이라 하여 현직관료 전원이 의례에 참석하고 있음을 우선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

72) 『宋會要輯稿』禮22 封禪 眞宗 大中祥符元年. 六月三日,詳定所上儀注四卷,帝覽之曰,此儀注久廢,非典禮具備,豈爲盡美. 卽手筭疑互凡十七事,令與五使參議,釐正而行之 … 十六,肆赦每一鼓投一杖,注云舊儀擊千下而止,不言今擊之數. 遂請改云立雞擊鼓,立訖即止,更不投杖.

73) 『高麗史』 권68, 志22 禮10 儀鳳門宣赦書儀.

사 운운하여 관직을 그만둔 전직관료도 역시 참여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면 의례에 참석했던 전직관료들이 致仕者<sup>74)</sup>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밑 줄 친 문장의 ‘理解官’을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때의 ‘理解官’은 ‘理官’과 ‘解官’의 합칭어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sup>75)</sup> 그렇다면 여기서 ‘이관’은 무엇이며, ‘치사자’, ‘해관’과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 다음 사료를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H-1. 〈文宗〉23년(1069) 관하기를, “外官의 妻가 서울에 있으면서 몸에 병이 생긴 경우, 휴가 30일을 준다. 또한, 외관의 몸에 병이 생긴 경우, 100일에 한정하여 휴가를 주며, 부모가 병이 들었는데 세 아들이 모두 외관에 임명된 경우, 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한 아들에게만 휴가 200일을 주고, 나머지 아들은 각각 휴가 50일을 주는데, 기한이 찬 경우 모두 解官한다.”라고 하였다.<sup>76)</sup>

H-2. 무릇 以理去官도 見任官과 같다[解職이 비록 以理去官된 것이 아닌 자라도 告身이 留保되어야 할 자는 또한 같다]. 疏議에서 이르기를, (以理去官이란) 범죄로 인해 해직된 것이 아닌 자를 말하는 것이니 즉, 致仕·交替·減員·州縣廢止 등과 같이 해직된 부류는, 議章·請章·減章·贖章(에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거나 親屬을 蔭庇할 수 있는 것이 모두 見任과 같다.<sup>77)</sup>

H-1는 『高麗史』 刑法志 官吏給暇를 규정한 내용으로 해관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료이다. 위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외관이 자신의 질병이나 부모의 상과 같은 사유로 받을 수 있는 휴가 기한을 지났을 경우, 해관에 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병가의 기한이 찼을 경우, 職에서 정직된 관원을 말했다. 사실 ‘해관’이란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현직에서 떠났지만, 官品과 告身은 그대로 보유한 전직관료를 의미한다.<sup>78)</sup> 따라서, 치사자가 70세에 늙어 퇴직한

74) 고려시대 관인들이 69세까지 관직에 종사하고 70세에 물러나는 것을 이른바 ‘致仕’라 한다. 그 가운데 3품 이상의 관인이 치사를 하게 되면 ‘致仕制’에 의해 현직관료 절반에 해당하는 녹봉을 지급 받는 특혜를 얻었다. 따라서, ‘致仕者’는 곧 70세 이후에 관직에서 물러난 자를 지칭한 표현이었다 (이진한, 2013, 「高麗前期 致仕制의 運營과 官人의 引年致仕」, 『민족문화연구』 58, 274·275쪽).

75) 기존 번역문에서는 ‘理’를 ‘이해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분석하여, “문무 관료 및 치사한 자 중 (행사를) 잘 이해하는 관원으로 응당 구정에 있어야 하는 자는 각자 본래의 반열에 위치한다.” 혹은 “퇴직한 관리로서 이 일에 능통하여”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문맥상 “理解官으로서 구정에 있어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앞에 나열된 문무관료·치사관과는 우선 구분되는 존재로 파악된다. 이 점에서 ‘이해관’을 형부의 재판관인 ‘理官’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解’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열거한 문무관원에 이관이 포함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文武群官 及致仕 以理解官 應在庭者’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나열된 것이며, 그것은 현임 관원 전체를 먼저 열거한 뒤 퇴임자를 유형별로 기술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위의 문장은 “문무백관 및 치사관, 이관과 해관으로 응당 구정에 있어야 할 자”로 번역하는 것이 옳으며, 이관과 해관은 공이나 私적인 사유로 퇴직한 관원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 『高麗史』 권68, 志22 禮10 儀鳳門宣敕書儀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역주, 2011, 『국역 고려사』16, 경인문화사, 485쪽).

76) 『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公式 官吏給暇. 二十三年, 判, 外官之妻, 在京身病者, 給暇三十日. 又外官身病者, 限百日給暇, 父母病, 三子俱爲外任者, 從父母願, 一子, 給暇二百日, 其餘子, 各給暇五十日, 其限滿者, 并解官.

77) 『唐律疏議』 권2, 名例 15 以理去官. 諸以理去官, 與見任同[解雖非理, 告身應留者, 亦同. 疏議曰, 謂不因犯罪而解者, 若致仕·得替·省員·廢州縣之類, 應入議·請·減·贖及蔭親屬者, 並與見任同.

78) 김택민 외, 1994, 『譯註 唐律疏議-名例編』, 한국법제연구원, 156쪽.



자라고 한다면, 해관은 개인적 사유로 70세 이전에 관직에 물러난 전직관료라 할 수 있겠다.

이제 ‘이관’에 대해서 살펴보자. H-2는 『唐律疏議』 名例 편에서 以理去官을 설명한 내용으로, 이때의 이리거관은 G의 이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唐律疏議』에 따르면, 이리거관은 범죄로 해직된 것이 아닌, 交替·減員·州縣廢止와 같이 공적인 사유로 직에 물러난 상태를 지칭하였다. 즉, 본의 아니게 공적인 일로 물러났음으로, 이리거관들은 현임관과 같이 議章·請章·減章·贖章<sup>79)</sup>에 적용받을 수 있거나 親屬을 蔭庇할 수 있는 특권을 유지했다고 한다. 여기의 이리거관<sup>80)</sup>이 “理로서 去官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이리거관은 이관과 동의어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추론이 옳다면 G사료에서 보이는 이관은 공적인 사유로 현직에 물러난 전직관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해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고려 사면의례에서는 중앙의 現職官僚 전원은 물론이거니와, 70세를 전후로 관직을 그만둔 致仕者, 70세가 되지는 않았지만 공적인 사유로 관직에서 물러난 理官, 사적인 사유로 관직에 물러난 解官 등 다양한 前職官僚들이 함께 참여하였던 것이다.

한편, 중앙에 참석한 관리로서 전·현직관료뿐만 아니라 학생의 참석도 주목된다. 여기서 內外學生은 국자감 소속의 內學生과 사학 12도 소속의 外學生들을 아울러 가르키는 말로 쓰여,<sup>81)</sup> 위 의례에서는 이들이 가요를 부르고 치사를 올렸다고 한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 사면의례에 참석해 가요를 불렀던 것일까? 다음의 사료를 보자.

I. 신은 삼가 보오니, 성상 폐하께서 모월 모일에 태묘에 朝享하시고, 모일에 의봉루에 나가셔서 대사령을 내리시니, 이에 白衣 諸生이 闕庭에 서립하여 각기 민요와 찬송을 올리며 우러러 성덕을 노래하였습니다. 신은 右拾遺의 자격으로 호종하여 거룩한 예식을 직접 보았사오며, 신은 본시 諸生이읍기에 제생의 올린 바에 의하여 삼가 ‘聖皇朝享大廟頌’한 편을 지었사옵나. … 어가가 대궐로 돌아가시니 찬송 소리 길을 매우네. 이에 단문에 납시어 德音을 반포하여 죄인을 풀어주고, 戶稅를 탕감해 주시네. 경한 것 중한 것 묻지 않고 禁錮의 원한을 씻어 주니 백성들은 모두 이렇게 말하네. “우리 聖皇은 백성의 부모시라. 효성으로 조종에 제사하시니 百福을 받으시리라.” 그 잔치 백성에게 미치니 은덕이 널리 넘치는구나.<sup>82)</sup>

79) 『唐律疏議』 권2, 名例 8·9·10·11 議章·請章·減章·贖章 참조.

80) ‘以理去官’은 明代 법전인 『大明律直解』 以理去官의 기록에서 더욱 자세히 보인다. 이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되거나, 교체되거나, 다른 직으로 옮겨가거나, 연로하여 벼슬에서 물러난 관원은 현임과 같게 대우한다. 이를테면 범죄로 말미암지 않고 해임된 경우로써 불필요한 관원을 감원하거나, 아문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따위는 비록 일 때문에 해임되거나 강등되었을지라도 고신을 환수하지 않으면 모두 현임과 같게 대우한다(『大明律直解』 권1, 名例律 12條 以理去官. 凡任滿·得代·改除·致仕等官 與見任同. 封贈官與正官同. 其婦人犯夫及義絕者 得與其子之官品同. 犯罪者, 並依職官犯罪律擬斷. 謂不因犯罪而解任者, 若沙汰冗員·裁革衙門之類, 雖爲事解任降等 不追詰命者, 並與見任)”라고 하였다.

81) 『高麗史』 권26, 元宗 5년 12월 癸亥.

82) 『東國李相國全集』 권19, 聖皇朝享大廟頌. 臣伏觀聖上陛下某月某日朝享大廟. 某日御儀鳳樓大赦. 於是內外白衣諸生. 序立闕庭. 各進謠頌. 仰歌聖德. 臣以右拾遺扈從. 親觀盛禮. 臣本諸生. 擬諸生所進. 謹成聖皇朝享大廟頌一篇. … 駕還大內. 頌聲載路. 迺御端門. 德音是布. 挺解囹圄. 鑄除戶賦. 無重無輕. 洗雪廢錮. 民咸曰. 我聖皇是民之父母. 孝祀祖宗. 惟百福是受. 燕及生民. 德洋恩普.

I는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東國李相國全集』에 실린 聖皇朝享大廟頌에 대한 내용이다. 위 상황은 高宗 2년 10월 乙未, 고종이 태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사면령[親祀圓丘後肆赦儀]을 내림에 따라<sup>83)</sup>, 이규보가 右拾遺 및 學生 신분으로 사면 의식에 참석하여 가요를 지어 올린 상황이었다.<sup>84)</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노래 가사에 투영된 이규보의 인식이다. ‘그 잔치[사면] 백성에게 미치니 은덕이 미치도다’라는 그의 표현을 살펴보면, 사면의 행위는 잔치이자 곧 은덕의 행위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사면은 한국 고대사회에서부터 재판과 함께 축제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전적으로 국왕에게 달려있었으며, 백성은 지배층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춤으로써 국가라는 공동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sup>85)</sup> 즉, 사면은 국왕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기회이자 축제였던 것이다. 아마도 이규보는 가요를 부르고 칭송하는 말들을 올림으로써, 사면이라는 국왕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왕만이 유일하게 베풀 수 있었던 은사를 보고 경험함에 따라 그 덕화를 가요로 화답하려 했던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장면이 사면의례에서만 엿보인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것에 부합하였다. 따라서, 사면의례에서 내외학생들이 가요를 부르고 칭송의 말을 올렸던 것은 국왕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중앙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외관과 해외에서 파견된 사신의 존재가 주목된다. 諸道奉表員은 각 지방에서 表文을 들고 온 지방 관원들로서, 여기서는 사면의례를 축하하는 賀表와 貢物을 함께 지참하여 가져온 外官들을 말한다.<sup>86)</sup> 본 사면의례의 경우, 지방에서 올라온 외관이 戶部尙書→禮部尙書에게 차례대로 공물을 바친 뒤 표문을 함께 올렸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사면의례에 경관 뿐만 아니라 지방관원인 외관 역시 참석했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 외관이 사면의례에 참석했던 것일까? 이 지점에서 唐의 元日朝會는 황제의 영역적 지배를 확인시켜주는 상징적 의식이었다는 의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87)</sup> 그에 따르면 “조하의 중요 요소인 諸州鎮의 表와 諸州貢物의 奏上은 황제에 의한 전국의 영역적 지배를 상징하는 요소”였다. 따라서, 고려 역시 사면의례에서 제도봉표원이 참석한 것은 국왕의 영역적 지배를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주종관계를 명확하게 다져 나가려 했던 것이라고 하겠다.<sup>88)</sup> 그렇다면 실제 사면의례에서 표문을 올린 지방관원의 모습은 어땠을까? 다음 사료를 통해 살펴보자.

J. 옥함에 승두표를 넣어 봉해 놓고  
비단 자리에서 봉미생 부는 소리 들었지  
〈전날에 封表하는 잔치를 생각하여 기록한 말이다.〉  
어제 취한 술 기운으로 마상에서 조니  
십리 강산을 꿈속에 지났구려

83) 『高麗史』 권22, 世家22 高宗 2년 10월 乙未. 親祫于太廟, 奉玉冊, 追上尊號 … 禮訖, 至高達坂, 崔忠獻結綵棚, 迎賀. 王命參乘, 還御儀鳳樓, 赦. 한편, 聖皇朝享大廟頌이 고종 2년 10월 을미에 작성된 사실은 『동국이상국전집』에 수록된 연보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84) 김용선, 2013, 『이규보 연보』, 일조각, 126·127쪽.

85) 김수태, 2010, 「한국 고대의 축제와 사면」, 『한국고대사연구』 59, 284~286쪽.

86) 이정란, 2019, 「고려전기 上表 儀禮와 국왕 권위의 顯現」, 『사림』 68, 66쪽.

87) 大津透, 2006, 『日唐律令制の財政構造』, 岩波書店, 184쪽.

88) 이정란, 2019, 앞의 논문, 82·83쪽.

여기에서 서울이 스무 역(參禮驛)이라

<이 역으로부터 서울까지 모두 20개이므로 삼례역을 20역이라고도 한다.>

평평한 벌판 모랫길 멀기도 한데

天門에 가서 金雞로 사면함을 하례코자 하니

기쁜 기운 얼굴에 감도누나

고을살이 매인 몸이라 말하지 마오

임금 뵈을 길 멀지 않아 기쁘기만 하네

무엇이 부러우랴 신선 왕 업령이

쌍 오리 타고 한 나라 궁궐 조회한 것이.<sup>89)</sup>

J는 『동국이상국전집』에 실린 ‘庚申五月. 奉賀敕表朝天. 遞馬參禮驛有作.’라는 시구절로, 당시 외관이었던 이규보의 상경 과정을 다룬 내용이다. 神宗 3년 5월 全州牧使綠兼掌書記 이규보가 봉표원으로 차출되기 이전, 고려에서는 왕태자 王惠의 책봉을 기념하기 위해 同年 4월 26일 대사가 실시되었다.<sup>90)</sup> 즉, 위 시는 신종 3년, 이규보가 대사를 축하하기 위해 상경 하던 과정에서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sup>91)</sup> 이러한 점은 밑줄 친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거니와, 당시 전주로 돌아가던 중 尙州의 持表先生을 양촌역에서 만나 시를 지어 주었던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sup>92)</sup> 정리하면 태자 책봉을 기념하여 마련된 사면에서 주요 거점의 외관들이 상표원으로 의례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도봉표원들의 참여는 국왕과 신료들 사이의 주종관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사면의례가 국가의례로서 위상을 보여줄 수 장치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客使의 존재가 주목된다. 객사는 외국에서 파견된 사신을 지칭한 표현으로, 이들은 사면의례에 참석하여 하례를 올렸다. 기록의 부재로 정확히 어떤 존재가 참석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이와 유사한 성격의 팔관회를 참조해볼 만하다. 팔관회는 고려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불교 행사로써, ‘팔관회적질서’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족·국가의 사신들이 참석하였다. 각 서열에 맞춰 송상인, 東西蕃人, 탐라인, 거란인, 아라비아상인, 일본상인 등이 고려에 파견되어 하례를 올렸던 것이다.<sup>93)</sup> 아마도 사면의례에서 해외 사신들이 참석해 하례를 올렸다면 팔관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89) 『東國李相國集』 권9, 古律詩 庚申五月 奉賀敕表朝天 遞馬參禮驛有作. 玉函封了蠅頭表. 綺席聞吹鳳尾笙. <記前日封表宴>. 宿醉昏昏馬頭睡. 溪山十里夢中行. 此去長安二十郵. <自此駟至京 凡二十駟 故參禮駟一名二十>. 草平沙軟路悠悠. 天門欲賀金雞敕. 已覺眉頭喜氣浮. 莫言作郡身如繫. 已喜賓天路不遙. 何羨神仙王鄴令. 雙鳧飛向漢宮朝.

90) 『高麗史』 권21, 世家21 神宗 3년 4월 기록을 살펴보면, 元子 王惠을 15일(陰)에 책봉하고 이후 사면을 반포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사면의례가 언제 실시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는 金克己가 저술한 「賀冊王太子表」를 통해서 그 시행일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聖上陛下. 以今月十五日. 冊立王太子. 越是月二十六日. 御儀鳳門. 大赦天下. 受中外朝賀者.”(『東文選』 권31, 表箋 賀冊王太子表)라 하여, 신종 3년 4월 26일에 사면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정란, 2019, 앞의 논문, 69·70쪽, 각주 26 참조).

91) 김용선, 2013, 앞의 책, 81쪽.

92) 『東國李相國全集』 권9, 古律詩 六月日. 早發長安指全州. 中路遇尙州持表先生. 同至楊材驛. 共宿贈之. 共乘飛傳指天涯. 笑晤聊寬客裏悲. 雨滴油衣元未着. 風飄紗帽不勝敲. 孤村淡淡人煙起. 一路依依驛柳垂. 綠酒三杯君莫讓. 聖恩猶及旅行時.

93) 奥村周司, 1979, 「高麗における八關會の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82·83쪽.

이외에도 일반 백성들의 참여가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사서를 읽고 선포하기를 끝마치면 백성은 감문위의 북소리에 따라 환호하였다. 고려에서 일반 백성들이 의례에 참여하는 경우는 팔관회·연등회와 같은 불교의례를 제외하면 사면의례가 유일하다.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는 興民同樂의 모습을 고려에서는 사면의례를 통해서 적극 연출하였다고 하겠다.<sup>94)</sup> 한편, 이와 관련해서 백성들의 의례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퍼포먼스 또한 마련했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요컨대, 사면의례는 중앙의 진·현직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의 외관과 해외의 객사, 나아가 백성 등이 아울러 동참하였다. 따라서, 다양·다수의 구성원의 참여는 국가의례로서, 사면의례가 고려에서 갖는 위상이 상당했으리라 여겨진다.

셋째로, 고려의 사면의례에서 엿보이는 다양한 ‘연출적인 요소(mise en scene)’가 주목된다. 연출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된 모습은 앞서 대고를 천 번 울려 죄를 씻겨주는 의식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그런데 연출적 요소는 그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고려의 사면의례에는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연출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사서가 독조대로 내려와 선포되는 연출장면이 주목된다. 고려에서 사서가 선포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자.

L. ① 鳳詔가 누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持節官·持函官은 앞에서 나가고 閣門은 中書令을 인도하여 下詔所에 도착하는데 중서령은 북쪽을 향하여 선다. … 讀敕官이 읽기를 마치면 持節官은 節衣를 씌운다. ② 협률랑이 꿇어앉아 머리를 숙이고 부복했다가 麾를 들고 일어나면 監門衛가 북을 두드리고 軍民은 환호한다. 협률랑이 麾를 내리면 그치고 다시 麾를 들면 북을 울리고 환호하기를 세 번 반복하고 멈춘다.

L은 국왕이 의봉루에 이어하여 사서를 선포하는 讀敕書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① 국왕의 조서가 독조대로 내려오는 장면과 ② 사서가 반포되고 난 후 군민들이 환호했던 장면이다. 이 두 가지 연출은 임금의 권위가 현현됨과 동시에 백성과 여민동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① 조서가 독조대로 내려오는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위 사료를 살펴보면, 정확히 조서가 어떻게 독조대 아래로 내려왔는지 기술이 되어 있지 않다. 물론, 여타의 의례처럼 국왕의 조서가 시중이나 의례집사관의 손을 거쳐 전달되는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다.<sup>95)</sup> 그러나 중국 사면의례에서 보이는 사서의 전달과정은 위와는 전혀 다른 연출적 과정을 담

94) 興民同樂을 확인할 수 있는 고려 의례로는 ‘八關·燃燈會’와 ‘老人賜設儀’ 등이 있다. 이는 다음 논문이 참조된다(김종명, 2018,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성격 재조명 및 절차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안지원, 2011, 『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한정수, 2014, 「高麗 太祖代 八關會 실행과 그 의미」, 『大東文化研究』 86 ; 2020, 「고려시대 老人賜設儀의 분석과 그 상징 의미」, 『역사교육』 155, 역사교육연구회 ; 2021, 「고려시대 老人賜設 실행 양상과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64).

95)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위 관직의 임명을 선포하는 ‘宣麻儀’의식이다. 이를 보면 국왕의 조서는 백관들의 손을 거쳐 계단을 타고 내려와 선포되었다(『高麗史』 권68, 志22 禮10 嘉禮 宣麻儀. 閣門引讀詔官, 就詔案前, 北向立. 閣使上殿, 詣王座前, 俛伏跪, 取詔函, 以授持函者. 持函者先行, 降自東階, 就案東北, 西向立, 閣使降階南向, 稱聖上不坐殿, 兩班, 皆躬身應諾). 자세한 내용은 김보광, 2019, 「고려전기 제상의 임명과정과 宣麻儀」, 『역사와 실학』 68 참조.

고 있어 주목된다.

M-1. 누각(先德樓) 위에 붉은 줄이 관통한 木鶴仙人이 制書を 받들어 줄을 타고 돌아 내려오는데, 땅에 이르면 畫臺에서 有司(通事舍人)가 학을 받들고 制書を 취해 책상 위에 올려둔다.<sup>96)</sup>

M-2. 또한, 조서를 받드는 木鶴仙人 한 개를 설치하고, 붉은 실로 꿰어서 꿰뚫고 轆轤를 이용해 잡아당겨 어전 앞의 난간 위에 설치하였다. 또한, 목학선인을 놓는 畫臺를 누각 아래의 한가운데 설치하였는데, 臺는 弩手 4인이 마주하여 들도록 하였다. … 東上閣門使가 [사면하는] 조서를 받들어 상자 안에 넣으면 閣門使人 2인이 뒤따랐고, 줄을 잡아당겨 목학선인을 내리길 기다렸다. … 문루 위에 木鶴仙人이 [사면하는] 조서를 받들고 있다가 끝을 따라 화대 아래로 내려오면 閣門使가 공손히 이를 받들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sup>97)</sup>

M-1은 『宋史』에 기록된 肆赦儀 내용으로, 독조대로의 사서 하달 장면을 언급하고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국왕이 이어한 선덕루에서 制書가 畫臺로 내려오면 유사[通事舍人]가 이를 받들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제서가 木鶴仙人을 통해 내려왔다는 점이다. 이때 목학선인은 ‘학을 탄 신선 모양의 나무 조각’을 말한다.<sup>98)</sup> 그런데 위의례에서는 제서를 人便이 아닌 목학선인에 올려 붉은 끈을 타고 내려오게 했다는 점이 상당히 독특하다. 결국, 제서는 손으로 건네진 것이 아닌, 특수한 무대장치를 이용하여 하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金朝에서도 시행되었다.

M-2는 『金史』 肆赦儀에 실린 사서 하달 장면으로, 『宋史』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붉은 실이 꿰어져 있는 목학선인은 轆轤라는 도르래를 이용해 난간에 위에 설치되었다. 누각 아래 가운데에는 畫臺가 있었는데 노수 4인이 이를 들고 서 있었다. 사서를 선포할 때가 되면, 동상합문사는 사서를 상자 안에 넣고 목학선인 위에 올려놓는다. 이후 누각에서 도르래를 타고 목학선인이 내려오면 畫臺에서 합문사가 사서를 받들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도르래가 설치된 무대장치를 통해 사서가 하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96) 『宋史』 권162, 志70 禮20 賓禮2 肆赦儀.樓上以朱絲繩貫木鶴, 仙人乘之奉制書循繩而下, 至地以畫臺承鶴, 有司取制書置案上.

97) 『金史』 권39, 志17 禮9 肆赦儀. 又設捧制書木鶴仙人一, 以紅繩貫之, 引以轆轤, 置於御前欄干上. 又設承鶴畫臺於樓下正中, 臺以弩手四人對舉 … 東上閣門使捧制書置於箱, 閣門舍人二員從, 以俟引繩降木鶴仙人 … 樓上乘鶴仙人捧制書, 循繩而下至畫臺, 閣使奉承置於案.

98) ‘木鶴仙人’에서 보이는 ‘학’과 ‘선인’은 도교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새는 길조의 동물로 인식되어왔는데,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문명이 발전하면서부터 새로운 이념이 새에게 부여되기 시작했다. 특히, 楚(?~BC 223)가 대표적이었는데, 초나라는 천국에 승천하는 길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 새에게 ‘타기’라는 형식을 부여해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본래, 사람이 죽어 영혼이 생기면 승천하여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아득히 멀고 높이 있어 쉽사리 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새에게 ‘타기’라는 형식을 부여하여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다(朱丹丹, 2009, 「騎鶴仙去·騎鶴吉來·試論騎鳥圖案的起源及時代變遷」, 『大眾文藝』 21). 이후 漢代에 들어서면서부터 神仙思想이 보편화 됨에 따라, 鶴을不老長生の靈物로 믿기 시작하였다(도광순, 1992, 「중국고대의 신선사상」, 『도교학연구』 9). 즉,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학을 타고 날아감으로써 승천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었다. 唐代와 달리 宋代부터 木鶴仙人이 사면의례에 등장한 점은 아마도 위와 같은 도교 숭상정책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의물의 출현은 아마도 신성한 기운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孫建權, 2017, 『守本納新:遼金敕宥制度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89쪽).

그렇다면 목학선인에 조서를 실어 하달하는 연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의례에서 국왕의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은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과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사면의례는 이들과 달리 무대장치를 통해 전달되었다. 이처럼 사서 하달에 연출적 요소를 부가했던 것은 국왕이 사면을 실시하는 행위를 시각화함으로써, 국왕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출을 목도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저절로 경외심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무대장치를 통한 연출적 장면을 확인해보았다. 고려의 경우, “鳳詔自樓上降下”라고만 기술되어 조서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선 중국의 사료를 통해 볼 때, 고려 역시 이와 유사한 연출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의 사료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N. 신 모 등은 아뢰나이다. 성상 폐하께서 이달 15일에 왕태자를 冊立하시고, 26일에 儀鳳門에 납시어 천하를 大赦하시고, 중외의 조하를 받으셨음을 엿드려 살폈나이다. 鶴禁에서 의식을 갖추시어 封崇의 典을 거행하옵시고 鳳樓에 詔書를 날려〔鳳樓飛詔優〕 渙汗의 恩을 반포하시니, 가까운 곳, 먼 곳이 모두 노래하고 춤추나이다.<sup>99)</sup>

N은 『東文選』에 실린 表箋의 내용으로, 金克己(1379~1463)가 작성한 賀冊王太子表이다. 위 표문에 따르면, 신종 3년 4월 15일 왕태자 책봉을 실시한 기념으로 4월 26일 대사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鳳樓飛詔優”라 하여, 당시 사면 시행과정에서 조서가 의봉루에서 날려 보내졌다고 기술한 대목이다. “鳳樓飛詔優”는 문학적 표현으로 불과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의봉루에서 조서를 날려”라는 표현을 유의해보면, 실제 사면의례에서도 연출적 요소가 적용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만약 이러한 연출적 요소가 실행되었다면, 고려의 백성들 또한 국왕의 사면권이 현현되는 장면을 목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사서가 하달된 장면을 살펴보았다. 이제 사서가 반포되고 난 후의 장면을 살펴 보도록 하자. L을 다시 살펴보면, 독서관으로부터 사서가 선포된 후, 북소리에 맞춰 군민들이 세 번 환호하는 장면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백성들의 반응을 환호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민의 환호는 자연스러운 환호가 아니라 협률랑(100)의 지휘에 맞춰 인위적으로 연출된 환호였다. 국왕의 은혜가 내려지는 장면을 목도한 백성들은 환호를 함으로써, 여민동락을 연출했던 것이다. 사실, 여민동락의 모습은 중국의 의례에서 잘 엿보인다.

중국에서는 군민의 환호 이외에도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놀이가 마련되었다. 그러한 놀이

99) 『東文選』 권31, 表箋 賀冊王太子表 金克己. 臣某等言. 伏審. 聖上陛下. 以今月十五日. 冊立王太子. 越是月二十六日. 御儀鳳門. 大赦天下. 受中外朝賀者. 鶴禁備儀縛. 講封崇之典. 鳳樓飛詔優. 頒渙汗之私. 自邇及遐. 式歌且舞.

100) 본래 協律郎은 당의 太常寺 소속 관원인 협률랑(正 8品)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악기의 상태를 검열하였으며, 본 의례에서는 지휘자 역할을 담당하여 깃발을 올리면 연주가 시작되고 늦히 면 멈추었다. 그러나 『고려사』 백관지 기록을 살펴보면 어느 소속에 편제되어있는 것 같지 않다. 김창현은 목종 원년 12월에 개정된 전시과 기록에서 협률랑을 일반문신·액정국원·무신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직책으로 보았다. 그는 협률랑이 어느 기구의 소속보다는 악공 중 음악에 정통한 원로가 임명된 것이 아닌가 추론하였다(김창현, 2001, 「고려시대 음악기관에 관한 제도사적 연구」,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4, 102·103쪽).

는 금계간을 중심으로 펼쳐진 독특한 연출적 장면에서 삽입되어 있다.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O-1. 높이가 10여 장(약 3m) 정도의 장대가 곳곳이 서 있었고, 그 위에는 紅幡을 물고 있는 金雞가 받침(盤) 위에 서 있었고 그 위에 “皇帝萬歲”라고 씌어 있었다. 받침 밑으로는 붉은 비단 동아줄(紅綵索)이 네 모퉁이로 늘어뜨려져 있어 네 명의 紅巾을 쓴 百戲人들이 앞을 다투어 줄을 타고 올랐는데, 먼저 금계를 잡는 이가 큰 소리로 천자의 은혜에 감사함을 외쳤다.<sup>101)</sup>

O-2. 소부감은 문루 아래의 왼쪽에 鷄竿을 세웠고, [계]간의 위에는 큰 쟁반을 두었으며 쟁반의 안에는 금으로 주조한 닭(金鷄)을 두었는데 닭의 부리에는 붉은 깃발이 물려 있었으며 깃발에는 금으로 “온 나라에 대사면을 실시한다(大赦天下)”라는 4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깃발을 말아 [닭의 부리가] 물고 있도록 하였다. 쟁반의 사면과 가까운 모서리에는 4개의 큰 쇠고리를 걸어두었고, 쟁반 바닥의 사면과 가까운 모서리에는 4개의 붉은 끈을 매달고 네 명의 재주꾼들로 하여금 가장자리에서 (장대를) 붙들고 있도록 하였다. … 시중이 어좌 앞에 나가서 성지를 받들어 물러나와 조금 앞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선포하여 말하기를 “칙서를 받들어 금계를 세우도록 하라”고 하였다. 통사사인이 문 아래의 조금 앞에서 동쪽을 향하여 선포하여 말하기를 “칙서를 받들어 금계를 세우도록 하라”고 하고 물러나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갔다. 금계[간]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대악서는 북을 쳤고, 견고히 세워지면 북 치는 것을 그쳤다. 장대를 잡은 재주꾼 4인이 가장자리에서 줄을 타고 경쟁적으로 먼저 장대 위로 올라갔고, 닭을 떼어 [부리에] 머금고 있는 깃발을 펼쳐 내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마치면 3번 “만세”를 외쳤다.<sup>102)</sup>

O-3. 사면 당일, 금계를 남쪽에 세우는데 장대의 높이는 7장이며, 닭의 머리는 4척으로 황금으로 꾸몄다. 絳幡을 물고 있는 재갈은 길이가 7척이며, 붉은 밧줄이 이어져 쟁반을 떠받치고 있고, 將作監이 이를 설치하였다. 桴鼓를 1000번 치면 百官·父老·囚徒가 집합한다. 어린아이(坊小兒)가 닭의 머리를 얻은 것을 관리가 돈으로써 사거나, 혹은 絳幡을 취하기도 하였다.<sup>103)</sup>

O-1, 2는 각각 南宋代의 『夢華錄』 明禮禮成登門放赦와 金代의 『金史』 肆赦儀이다. 금계간에서 쟁탈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두 사료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금계간 쟁탈전’은 사서를 선포하고 난 이후 실시된 놀이였다. 장대 꼭대기에는 금으로 된 닭이 있고, 그 부리에는 붉은 깃발이 물려 있었다. 이때 붉은 깃발에는 ‘皇帝萬歲’ 혹은 ‘大赦天下’라 적혀있는데, 전자는 송대, 후자는 금대의 글귀였다. 금계를 바치는 쟁반에는 4면

101) 『夢華錄』 권5, 下 明禮禮成登門放赦. 丈竿尖直, 上有盤, 立金雞, 銜紅幡, 上書 皇帝萬歲, 盤底以紅綵索懸於四角, 令四紅巾百戲人爭先沿索而上, 先得者執金雞嵩呼謝恩.

102) 『金史』 권39, 志17 禮9 肆赦儀. 少府監設鷄竿於樓下之左, 竿上置大盤, 盤中置金鷄, 鷄口銜絳幡, 幡上金書 ‘大赦天下’ 四字, 卷而銜之. 盤四面近邊安四大鐵環, 盤底四面近邊懸四大朱索, 以備四伎人攀緣 … 侍中詣御座前承旨, 退, 稍前南向, 宣曰, ‘奉敕樹金雞’. 通事舍人於門下稍前東向, 宣曰, ‘奉敕樹金雞’. 退復位. 金雞初立, 大樂署擊鼓, 樹訖鼓止. 竿木伎人四人, 緣繩爭上竿, 取雞所銜絳幡, 展示訖, 三呼 ‘萬歲’.

103) 『新唐書』 권48, 志38 百官3 少府 中尚署. 赦日, 樹金雞於仗南, 竿長七丈, 有雞高四尺, 黃金飾首, 銜絳幡長七尺, 承以綵盤, 維以絳繩, 將作監供焉. 擊桴鼓千聲, 集百官·父老·囚徒. 坊小兒得雞首者官以錢購, 或取絳幡而已.

의 모서리 끝에 4개의 쇠고리가 달려있었고, 연이어 붉은 끈이 매달려져 있었다. 사면의 선포가 완료되면, 4명의 百戲人들은 가장자리에서 장대를 붙들고 서 있었다가 구령에 맞춰 경쟁적으로 줄을 타고 장대 위로 올라갔다. 이 중 먼저 올라간 자가 닭의 머리를 쟁취하여 부리에 머금은 붉은 깃발을 사람들에게 펼쳐 보였는데, 이때 적혀있던 글귀를 외치면서 황제의 은혜에 감사함을 외쳤다고 한다. 즉, ‘금계간 쟁탈전’은 줄을 타고 장대 위로 올라가 닭의 머리를 쟁취해 깃발에 쓰여진 문구를 읽으면 우승하는 놀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면의례에서 금계를 쟁탈하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는 O-3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 O-3는 『新唐書』에 수록된 사면 내용으로, 이미 唐代부터 ‘금계간 쟁탈전’이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북소리에 맞춰 죄수, 백관, 노인들이 모두 모이면 어린이들이<sup>104)</sup> 밧줄을 타고 닭의 머리를 쟁취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백성이 놀이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놀이의 대상자인 어린이(坊小兒) 뿐만 아니라, 이를 목도하고 있던 노인의 모습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즉, 백성이 직접 참여하고 놀 수 있는 놀이를 연출하여, 사면의례가 모두 여민동락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더욱이 금계를 획득한 자는 경제적 이익과 명예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점<sup>105)</sup>에서 그 기쁨은 배가 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사면의례에 ‘금계간 쟁탈전’이라는 놀이를 연출시킴으로써, 백성과 함께 여민동락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주었으며, 이를 통해 백성들은 황제의 은혜에 감화되었다. 나아가 ‘황제만세·대사천하’로 쓰여진 붉은 깃발의 문구를 읽게 함으로써, 그것을 목도하고 있던 백성들은 임금의 권위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금계간을 중심으로 펼쳐진 독특한 연출을 살펴보았다. 아쉽게도 고려에서는 기록상 위와 같은 연출이 보이지 않는다. L사료와 같이 백성과 함께 환호하는 장면만 찾아질 뿐이다. 그러나 고려 사면의례 공간에 실제 금계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 조서를 의봉루에서 날려보냈다고 표현한 표문의 글귀 등을 고려해볼 때, 중국과 유사한 연출이 실시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sup>106)</sup> 그리고 ‘금계간 쟁탈전’이 실시되었다면, 사서가 선포되는 이후의 시점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즉, 고려의 사면의례 절차상 사서 반포 후 脫枷를 연이어 진행하기 때문에, 脫枷·朝賀 사이 단계에 실시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요컨대, 고려에서 실시된 사면의례에서는 국왕이 독점하는 사면권의 발현을 보여주는 대

104) ‘금계간 쟁탈전’은 唐代의 어린이(坊小兒)와 달리 宋代로 들어서면서부터 百戲人들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존의 궁정에서만 이루어지던 공중극예의 기인들이 민간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으로 변화하였던 것이다(안상복, 2006, 『중국의 전통 잡기』, 서울대학교출판부, 48쪽). 또한, 대상자의 변화는 금계간의 높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문적인 기인의 등장은 더욱 어렵고 아찔한 묘기들로 연출되었다. 唐代 금계간의 높이가 7장이었던데 반해, 宋代에는 10장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즉, 기인들이 더욱 경쟁적으로 타기를 연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宋末·元代 때로 들어서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자 오히려 장대 길이를 줄이거나 금지시키는 상황으로 연출되었다(안상복, 2006, 앞의 책, 48·49쪽).

105) 田明輝, 2019, 앞의 논문, 27쪽. 한편, 후대 사료이나 『武林舊事』의 기사를 살펴보면, 금계간 쟁탈전이 끝난 후 “緇羅襖子一領, 絹十匹, 銀碗一只重三兩.”를 얻었다 하여, 唐代에 이어 宋代에도 금계간을 쟁취한 자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武林舊事』 권1, 登門肆赦).

106) 다만, ‘친사원구후사사의’처럼 환궁하는 과정에서 사면 의례가 진행되었을 때는 사서 하달 연출장면이 생략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봉문선사사의’처럼 국왕이 의봉문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의례에서 근신이 사서를 수레 앞에서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연출적 장면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高麗史』 권68, 志22 禮10 親祀圓丘後肆赦儀. 讀敕書官, 進立於案之南, 北向, 近臣進當輅前, 再拜搢笏, 跪受敕書).



표적 매개체로서 금계간과 대고를 적극 활용하였다. 나아가 중앙의 전·현직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의 외관과 해외의 객사 및 백성 등이 아울러 참석하도록 하여, 국왕의 권위가 현현되는 장면을 직접 목도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① 사서를 화려하게 하달하는 장면, ② 북을 천 번 쳐 죄를 씻겨주는 장면은 물론, ③ 백성들이 환호하는 장면, ④ 금계간 쟁탈전 등 세세한 연출적 요소를 가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백성과 함께하는 이상 군주가 사면을 내려주는 은혜를 직접 보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자연히 경외심을 가지고 임금의 덕치에 감화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고려전기 사면의례는 국왕의 권위가 시각적으로 발현되던 국가의례라 할 수 있겠다. 고려 국왕은 사면을 의례로 정립시켜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시키고 나아가 신민들과의 주종관계를 명확하게 만들었다. 즉, 고려 국왕은 사면의례에 독특한 의장물, 다양·다수의 참석자, 화려하고 장엄한 연출적 장면들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은혜를 만방에 펼쳐 보였다. 또한, 군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국가적 행사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그런 까닭에 고려전기의 사면의례는 국왕의 권위가 전적으로 발현되던 국가의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본 논문은 『高麗史』禮志에 수록된 고려전기의 사면의례 구성방식을 살펴보고, 나아가 사면에 쓰인 의장물을 통해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을 고찰해보았다. 본 장에서는 앞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면의례는 敕書를 선포하는 의례 행위로, 국왕의 권력을 발현시키는 수단이자 만민에게 덕치를 베푸는 매개체였다. 그에 따라 국왕은 사면을 예식화시켜 통치의 수단으로써 유용하게 사용해왔다. 『고려사』 예지에 수록된 3개의 사면의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구성방식을 비교해보면, 우선, ‘宥旨賀儀’가 고려전기와 달라진 후기의 의례를 알려주기 위해 기술한 것이라면, 전기의 의례인 ‘儀鳳門宣敕書儀’와 ‘親祀圓丘後肆赦儀’는 국왕의 동선과 의례 구성내용 상의 차이로 인해 별도로 수록할 수밖에 없었다. ‘의봉문선사서의’는 국왕의 동선이 궁 내부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적용한 사면의례라면, ‘친사원구후사사의’는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한 경우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이동 동선의 차이는 사전행사의 유무와 관련이 깊다. 전자는 그 자체가 본 의식이었고, 후자는 본 의식에 뒤에 부가의례로서 거행되던 사면의례였다.

또한, 두 의례에서는 구성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의봉문선사서의’가 ‘準備-赦免-朝賀-宴會’ 4단계로 구성되는 반면, ‘친사원구후사사의’는 朝賀가 생략된 ‘準備-赦免-宴會’ 3단계로 구성된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 조하가 보이지 않은 까닭은 앞서 圓丘儀禮의 ‘親祀圓丘後齋宮受賀儀’에서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미 앞선 단계에서 조하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후에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의봉문선사서의’는 ‘準備-赦免-朝賀-宴會’ 등 크게 4단계로 진행되었다. 준비단계에서는 주로 진설 및 국왕의 이어 과정과 이후 위차에 맞춰 반열을 정비하는 장면들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사면 단계는 사면이 본격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사서를 읽고 죄수를 풀어주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이후 마치면, 각 지방에서 공물을 바치고 이를 축하하는 조하 의례와 궁으로 돌아가는 이어 절차가 진행되었다. 끝으로 국왕은 대관전으로 돌아갔지만, 축약의 결과로 생략된 ‘대관전연군신의’가 이어서 진행되었다.

한편, 위 의례에서 등장하는 의장기물과 절차를 통해 일반의례와 다른 특수성을 엿보았다. 우선 첫째로, 금계간과 대고는 사면의례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의장물로, 국왕이 독점하는 사면권의 발현을 보여주는 대표적 매개체였다. 사면의례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정에서 금계간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국왕이 곧 사면을 시행할 알림의 징표이자, 사면의례가 거행될 신성한 장소임을 표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금계간은 은택을 베풀고 임금의 권위를 형상화한 의물이라는 점에서 국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장치였다. 또한, 대고의 북소리는 사면을 선포하는 ‘울림’의 표상이었으며, 나아가 죄수들의 죄를 씻겨 내보내는 연출적 장치였던 것이다. 즉, 사면의례에서 금계간과 대고의 등장은 임금의 권위를 보여주는 독특한 의장물이었다.

둘째로, 사면의례는 중앙의 현직관료·전직관료(致仕者·理官·解官)뿐만 아니라 지방의 외관과 해외의 사신, 나아가 태자와 백성, 학생, 죄수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아울러 참석하였다. 고려에서 이처럼 다양·다수의 구성원들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사면의례가 국가의례로서 지니는 의미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고려 국왕은 사서를 하달시키는 장면과 북 치는 장면들을 화려하게 연출시킴으로써 백성들에게 국왕의 권위를 목도하게끔 만들었다. 또한, 백성들이 환호하는 장면과 금계간 놀이를 특별하게 연출시킴으로써 백성과 함께하는 이상적인 군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연출은 백성들이 덕치에 감화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부록]

	국왕							
(가) 층	우시신▷ 우추밀▷ 찬 자▷ 우봉례▷				◁좌추밀    ▷좌시신 ◁좌봉례    ▷찬 자		◁합문부사 ◁사인이하	
							◁중서령 ◁시중 ◁예부상서 ◁형부상서 ◁호부상서 ◁형부시랑 ◁황문시랑	
(나) 층			△ 태자배위  △△△백·후·공배위 △△△ 재신배위		◀ 태자 문사위	▶  ▶  ▶ 공후백 문사위	▶  ▶  ▶ 재신 문사위	
(다) 층	▶▶ ▶▶ ▶▶ ▶▶ ▶▶ 무관 4품 문사위	▶▶ ▶▶ ▶▶ ▶▶ ▶▶ 무관 3품 문사위	△△△△ 무관 3품 배위	△△△△ 문관 3품 배위	◀◀ ◀◀ ◀◀ ◀◀ ◀◀ 문관 3품 문사위	◀◀ ◀◀ ◀◀ ◀◀ ◀◀ 문관 4품 문사위		
			△△△△ △△△△ 무관 4품 배위	△△△△ △△△△ 문관 4품 배위				

<그림 1> 聞辭位와 拜位 배치도

(※ ▲는 聞辭位, △는 拜位를 의미함)

## 참고문헌

### 1. 자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金史』, 『唐律疏議』, 『大唐開元禮』,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夢華錄』, 『封氏聞見記』, 『星湖僊說』, 『宋史』, 『隋書』, 『新唐書』, 『楊文公談苑』, 『太平御覽』.

### 2. 저서

- 강제훈, 2015, 『조선 전기의 국가 의례와 의주』, 민속원.
- 김세배, 1970, 『朝鮮王朝 赦免制度의 研究』, 徽文出版社.
- 김아네스, 2019, 『고려의 국가제사와 왕실의례』, 경인문화사.
- 김용선, 2013, 『이규보 연보』, 일조각.
- 김종명, 2018,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성격 재조명 및 절차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 , 2017, 『고려 도읍과 동아시아 도읍의 비교연구』, 새문사.
- 김철웅, 2007, 『한국 중세의 吉禮와 雜祀』, 경인문화사.
- 김택민 외, 1994, 『譯註 唐律疏議-名例編』, 한국법제연구원.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역주, 2011, 『국역 고려사』, 경인문화사.
- 박용운, 2009, 『고려사 백관지 역주』, 신서원.
- 신호웅, 1995, 『高麗法制史研究』, 國學資料院.
- 안지원, 2011, 『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와타나베 신이치로, 2002, 『천공의 옥좌』, 신서원.
- 이범직, 1991, 『韓國中世禮思想研究-五禮를 中心으로』, 一潮閣.
- 이성구, 1997, 『중국고대의 주술적 사유와 제왕통치』, 일조각.
- 이희덕, 1984, 『고려유교 정치사상의 연구』, 일조각.
- 채웅석 외, 2010, 『월령과 국가』, 민속원.
- 캐서린 벨, 2009, 『의례의 이해:의례를 보는 관점들과 의례의 차원들』, 한신대학교출판부.
- 하워드 J. 웨슬러, 2005, 『비단같은 주옥같은 정치』, 고즈원.
- 大津透, 2006, 『日唐律令制の財政構造』, 岩波書店.
- 孫建權, 2017, 『守本納新:遼金赦宥制度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佐竹昭, 1998, 『古代王權と恩赦』, 雄山閣出版.
- 中村裕一, 1991, 『唐代制勅研究』, 汲古書院.
- 陳俊強, 2007, 『皇權的另一面-北朝隋唐恩赦制度研究』, 北京大學出版社.
- 清木場東, 1997, 『帝賜の構造』, 中國書店.
- 豊島悠果, 2017, 『高麗王朝の儀禮と中國』, 汲古書院.

Brian E. Mcknight, 1986, 『The Quality of Mercy-Amnesties and Traditional Chinese Justice』, University Press Of Hawaii Honolulu.

### 3. 논문

- 김대식, 2009, 「고려 行頭·班首의 검토」, 『역사와담론』 53.
- 김보광, 2019, 「고려전기 閣門의 역할과 국가의례상 의미」, 『東方學志』 189.
- , 2019, 「고려전기 재상의 임명과정과 宣麻儀」, 『역사와 실학』 68.
- , 2021, 「고려전기 궁궐구조와 국왕의 정치 공간-閣門의 의미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19.
- 김상범, 2009, 「土牛儀禮의 法制化過程과 儀禮變化에 나타나는 時代的 含意-天聖令과 唐令의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12.
- 김선미, 2019, 「고려전기 王太子 朝賀儀를 통해 본 왕태자의 위상」, 『동방학지』 189.
- 김수태, 2010, 「한국 고대의 축제와 사면」, 『한국고대사연구』 59.
- 김신해, 2015, 「고려 예종대 恩賜 정책의 유형과 정치적 성격」, 『한국사학보』 58.
- 김양동, 2004, 「북소리, 그 神命의 세계」, 『한국학논집』 31.
- 김유진, 2019, 「고려시대 毬庭의 의례적 활용과 다변성 고찰-고려사 세가기록을 중심으로」, 『民俗學研究』 44.
- 김창현, 2001, 「고려시대 음악기관에 관한 제도사적 연구」,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4.
- , 2011, 「고려사 예지의 구조와 성격」, 『한국사학보』 44.
- 남창근, 2020, 「고려 본궐 만월대 주요전각 위치와 배치체계」, 『중앙고고연구』 32.
- 노명호,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 송  진, 2016, 「秦漢時代 통행 허가와 君命의 상징」, 『중국고중세사연구』 42.
- 신호웅, 1992, 「高麗時代의 赦免制度」, 『何石金昌洙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동간행위원회.
- 안상복, 2006, 「중국의 전통 장대곡예(竿技) 그 기원과 역사 전개」, 『中國文學』 47.
- 유성국, 1997, 「高麗時代의 赦免制度」, 『연세법학연구』 4.
- 윤훈표, 2018, 「고려 전기 赦免 실시의 특징과 행형 체계의 수립 방향」, 『사학연구』 130.
- , 2019, 「고려 성종대 실시되었던 사면과 그에 수반된 은전에 대한 분석-특히 宋·遼의 책봉 및 東·西京의 행차 때 실시된 것들을 중심으로」, 『학림』 44.
- , 2019, 「고려 후기 赦免의 추이와 각 시기별 특징의 분석」, 『역사와실학』 68.
- 이기백, 1997, 「한국 고대의 축제와 재판」, 『歷史學報』 154, 歷史學會.
- 이민기, 2016, 「高麗 前期 鹵簿의 構成과 運用」,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17, 「고려시대 법가노부의 구성과 운용」, 『한국중세사연구』 48.
- 이승민, 2019, 「고려시대 국왕 관련 의례 연구의 성과와 제언」, 『동방학지』 189.
- 이정란, 2019, 「고려전기 上表 儀禮와 국왕 권위의 顯現」, 『사림』 68.
- 이정훈, 2020, 「『高麗史』 禮志 嘉禮의 구성과 서술방식」, 『역사와 실학』 72.
- 이종서, 2012, 「고려 국왕과 관리의 服飾이 반영하는 국가 위상과 자의식의 변동」, 『한국문화』 60.
- 이진한, 2004, 「고려시대 本品行頭」, 『역사와현실』 54.

- , 2013, 「高麗前期 致仕制의 運營과 官人의 引年致仕」, 『민족문화연구』 58.
- 이현정, 2011, 「고려시대 毬庭에 관한 연구」, 『歷史學報』 212.
- 정동훈, 2015, 「고려시대 사신 영접 의례의 변동과 국가 위상」, 『역사와 현실』 98.
- 최종석, 2010,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51.
- 한영화, 2014, 「신라 사면의 의례와 공간」, 『역사와 현실』 94.
- 한용근, 1986, 「高麗時代의 赦에 관한 研究」, 『慶熙史學』 12·13.
- 한정수, 2014, 「高麗 太祖代 八關會 실행과 그 의미」, 『大東文化研究』 86.
- , 2018, 「고려시대 국가의례의 設行과 統合意識」, 『한국중세사연구』 55.
- , 2021, 「고려시대 老人賜設 실행 양상과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64.
- 葛承雍, 1993, 「唐代金雞風俗談」, 『歷史月刊』 70.
- 譚艷玲, 2013, 「宋詩中的男子簪花現象研究」,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 奥村周司, 1979, 「高麗における八關會の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 于廣哲, 2010, 「中古放赦文化的象征-金雞考略」, 『陝西師範大學學報』 39.
- 于飛虎, 2017, 「宋代赦宥制度研究」, 西南政法大學 碩士學位論文.
- 禹成旼, 2003, 「唐代赦文研究」, 北京大學教 博士學位論文.
- 根本誠, 1960, 「唐代の大赦について」,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6.
- 田明輝, 2019, 「唐代赦免制度研究」, 西北政法大學 碩士學位論文.
- 佐竹昭, 1988, 「藤原宮の朝廷と赦宥儀禮-古代宮室構造展開の一試論」, 『日本歷史』 478.
- 朱丹丹, 2009, 「騎鶴仙去·騎鷄吉來-試論騎鳥圖案的起源及時代變遷」, 『大眾文藝』 21.
- 馮尢才 외, 2011, 「宋代男子簪花習俗及其社會內涵探析」, 『民俗研究』.
- 姬秀麗, 2005, 「唐代赦免制度研究」,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윤채운, 「고려전기 사면의례의 구성과 의미」에 관한 토론문

이승민(가톨릭대)

발표문은 고려전기 사면 의례의 구성, 절차, 의장물 등을 분석하여, 국왕 권력의 발현과 권위의 상징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고려사』 예지에 수록된 사면 의례의 시기적 구분과 각 의례 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부각시켰고, 나아가 의례에서 활용된 의장물의 유래와 의미를 다수의 사료를 정합적으로 서술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사면 의례의 구성과 의미에 관한 발표자의 서술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그 외의 의문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1. 발표문은 2장 사면의례의 구성과 구조, 3장 宣赦書儀의 절차와 의미를 다루었다. 2장에서는 예지에 수록된 사면의례의 시기, 구성 및 내용의 차이점을 토대로 의례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의례의 가장 큰 차이를 ‘국왕 동선’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표문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사실상 큰 차이는 사면이 주가 되는 의례, 부가 되는 의례로 구분하는 것이 더 의례 의미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주가 되는 (의봉문)宣赦書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 2장과 3장의 연결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동선보다는 주요 의례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발표문의 연구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2.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23쪽에서 客使를 ‘팔관회적 질서’로 설명하고 있는데, 의봉문에서 사면을 내리는 의식이 인종 16년(1138) 이후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고려 사면의례에 해외 사신들이 참석해 하례를 올렸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또한, 발표자는 사면의례의 ‘연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사례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고려 사면의례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퍼포먼스에 대한 역사적 상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다만, 그 가운데 고려사 의례에 조서를 전달한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사례에 등장하는 ‘목학선인’과 시문의 ‘飛詔’를 연결하는 부분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본문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3장에서 구체적으로 (의봉문)宣赦書儀를 분석했는데 그 가운데 <표3>의 ③朝賀-賀禮 부분을 보면, “합문의 인도 아래 호부상서 - 예부상서 - 제도 봉표원 - 내외학생 - 객사의 순으로 표문과 공물을 바치”는 것으로 일괄 처리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호부상서와 예부상서는 각각 物狀을 받들고 “臣某言, 諸道貢物, 請付所司.”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의 명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 諸道 봉표원이 표문을 바치고, 내외학

생이 歌謠를, 객사가 하례하는 것은 각 계층에 따른 별도의 의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